JRI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 부대시설 위치를 중심으로 -

황석규 · 고광명 · 송 훈

발 간 사

제주근대문화유산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모슬포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전적지 조사를 통해 13곳의 근대문화유산이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51년 제주도에 존재하였던 한국 최초의 신병훈련소였던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연구는 그 시급성에 비해 현재까지 미미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훈련장 범위, 훈련장 수, 훈련병과 교관의 수 등 훈련소의 규모가 아시아 최대의 신병교육 훈련장이었습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논산의 육군 제2훈련소로 신병교육의 역할이 이전되기 전까지 5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약 50만 명의 신병을 훈련시켜 전쟁터로 투입시켰고, 한국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육군과 전쟁의 역사 그리고 제주도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관련 육군 최초의 훈련소라는 점에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으며, 제주도를 넘어 한국 전역에 이르는 근대문화유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육군 제1훈련소와 관련하여 제주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는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제409호), 제주 구 해병훈련시설(제410호), 강병대교회(제38호), 육군 제98병원 병동(제680호)만이 지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육군 제1훈련소 제주 창설 및 운영은 제주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조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시급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현 시점에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우선적으로 선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 현장과 조사연구를 병행하시느라 애쓰신 황석규 책임연구원님을 비롯하여 고광명, 송훈 선생님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주학연구센터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11월

제주연구원장 **김 동 전**

목 차 CONTENTS

Ⅰ.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범위 ····· 3

2–1. 연구방법 ····· 3

2–2. 연구범위 ·····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3–1.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 6

3–2. 초대 훈련소장(백인엽)의 인터뷰 ····· 6

3–3. 제주 제1육군훈련소 구술조사 – 경상남도 함양을 중심으로 ····· 7

Ⅱ.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역사 ····· 9

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 ····· 9

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역대 소장 ····· 13

2–1. 백인엽(白仁燁) ····· 13

2–2. 장도영(張都暎) ····· 14

2–3. 오덕준(吳德俊) ····· 15

2–4. 권 준(權 俊) ····· 16

2–5. 이응준(李應俊) ····· 16

2–6. 이준식(李俊植) ····· 17

2–7. 오창근(吳昌根) ····· 17

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설치 및 위치 ····· 18

3–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시설 ····· 18

3–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시설의 위치 ····· 21

Ⅲ.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조사결과 ····· 24

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전면도와 정문 ····· 24

1–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전면도 ····· 24

1–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 ····· 27

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 29

2–1. 연대 ····· 30

2–2. 연병장 ····· 32

2–3. 종합훈련장 ····· 34

2–4. 본부 지휘소 ····· 38

2–5. 화순 항만대 ····· 40

2–6. 장병대기소 ····· 42

2–7. 수용대 ····· 43

2–8. 하사관학교 ····· 44

2–9. 신병 숙영지 ····· 46

2–10. 하사관교육연대 숙영지 ····· 51

2–11. 육군 제98병원 ····· 54

2–12. 헌병대(법무부) ····· 56

2–13. 공병대 ····· 57

2–14. 정훈부 ····· 58

2–15. 병참대 ····· 59

2–16. 급양 생산대 ····· 60

2–17. 보육대(保育隊) ····· 61

2–18. 교도연대(교수단) ····· 63

2–19. 운전병학교 ····· 64

2–20. 군예대(軍藝隊) ····· 66

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기타 부대시설 ····· 68

3–1. 강병대(强兵臺)교회 ····· 68

3–2. 충혼비 ····· 70

3–3. 한글교육대 ····· 71

3–4. PX ····· 72

4. 미확인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 73

4–1. 경비대 ····· 73

4–2. 통신대 ····· 73

4–3. 군악대 ····· 74

4–4. 수송대 ····· 74

4–5. 기타 미확인 부대시설 ····· 75

Ⅳ. 결론과 제언 ····· 76

1. 결 론 ····· 76
2. 정책적 제언 ····· 77
3. 향후 연구 과제 ····· 78

참고문헌 ····· 80
Abstract ····· 82
부 록 ····· 84
▣ 자문위원 회의록 ····· 84
▣ 전문가 회의록 ····· 85
▣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구술채록 조사카드 ····· 86

표 목차

〈표 Ⅰ-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과 위치 ····· 5

〈표 Ⅱ-1〉 육군 제5훈련소 역대 소장 ····· 10
〈표 Ⅱ-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역대 소장 ····· 13
〈표 Ⅱ-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단계별 특성 ····· 20
〈표 Ⅱ-4〉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창설 및 해체 ····· 20

〈표 Ⅲ-1〉 대정읍 유적 안내지도 내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 25
〈표 Ⅲ-2〉 〈표 Ⅱ-3〉과 〈표 Ⅲ-1〉의 부대시설 합산 ····· 26
〈표 Ⅲ-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의 명칭과 위치 ····· 26
〈표 Ⅲ-4〉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연대별 현황 ····· 31
〈표 Ⅲ-5〉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입소자 현황 ····· 31

사진 · 그림 목차

〈사진 Ⅰ-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관련 면담조사 ····· 4

〈그림 Ⅱ-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위치 ····· 22
〈그림 Ⅱ-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위치(자체 제작) ····· 23

〈사진 Ⅲ-1〉 대정읍 다크투어 유적 안내지도 표지판 ····· 24
〈사진 Ⅲ-2〉 대정읍 유적 안내지도 내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 25
〈사진 Ⅲ-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 ····· 28
〈사진 Ⅲ-4〉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초소 ····· 28
〈사진 Ⅲ-5〉 연대 배치 장소와 제9연대 마지막 장소 ····· 30
〈사진 Ⅲ-6〉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연대 막사 ····· 32
〈사진 Ⅲ-7〉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연병장(현재) ····· 33
〈사진 Ⅲ-8〉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연병장(과거) ····· 34
〈사진 Ⅲ-9〉 기초 사격술 훈련장(과거) ····· 36
〈사진 Ⅲ-10〉 기초 사격술 훈련장(현재) ····· 36
〈사진 Ⅲ-11〉 각개전투 실시 장면 ····· 37
〈사진 Ⅲ-12〉 완전군장 행군 모습(산방산) ····· 38
〈사진 Ⅲ-1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본부 지휘소 ····· 39
〈사진 Ⅲ-14〉 화순 항만대 신병 입소 ····· 41
〈사진 Ⅲ-15〉 화순 항만대 모습 ····· 41
〈사진 Ⅲ-16〉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장병대기소 ····· 42
〈사진 Ⅲ-17〉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수용대 ····· 44
〈사진 Ⅲ-18〉 제주 육군 제1훈련소 하사관학교 ····· 45
〈사진 Ⅲ-19〉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제1숙영지 ····· 47
〈사진 Ⅲ-20〉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제2숙영지 ····· 49
〈사진 Ⅲ-2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제3숙영지 ····· 50
〈사진 Ⅲ-2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제5숙영지 ····· 51
〈사진 Ⅲ-23〉 하사관교육연대 제1숙영지 ····· 52
〈사진 Ⅲ-24〉 육군 제98병원 ····· 55
〈사진 Ⅲ-25〉 제주 육군 제1훈련소 헌병대 사열 모습 ····· 57
〈사진 Ⅲ-26〉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보육 극장 ····· 62
〈사진 Ⅲ-27〉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교도연대 정문 ····· 64
〈사진 Ⅲ-28〉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운전병학교 ····· 65
〈사진 Ⅲ-29〉 군예대와 삼다도 소식 노래 기념비 ····· 67
〈사진 Ⅲ-30〉 강병대교회 ····· 69
〈사진 Ⅲ-31〉 충혼탑 ····· 71
〈사진 Ⅲ-3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통신대 ····· 73
〈사진 Ⅲ-3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군악대 ····· 74
〈사진 Ⅲ-34〉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수송대 ····· 74

연구요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제주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 4·3 실태 및 유적지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일제 전적지, 일제강점기 문화유산(공장, 가옥 등), 제주 근현대 생활문화 공간(제주극장, 관광극장, 제주관광호텔 등), 그리고 해양 문화시설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주 4·3 실태와 유적지 그리고 일제 전적지 조사는 많은 연구 기간을 할애하여 심도 높은 제주 근대문화유산 연구가 실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51년에 창설되어 제주도에 존재했던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미한 정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의 지정은 단 3곳(육군 제1훈련소 교수관(제410호), 강병대교회(제38호), 육군 제98병원(제680호))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에서 최초로 다수의 신병훈련을 담당하기 위해 창설된 육군 제1훈련소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연구는 미진한 상태에 놓여있다.

○제주도에 존재했던 한국 최초 육군 제1훈련소는 훈련장 범위, 훈련장 수, 훈련병 수, 교관(조교) 수 등 훈련소의 규모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병교육 훈련장이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논산의 육군 제2훈련소로 신병교육의 역할을 이전시키기 전까지 5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약 50만 명의 신병을 훈련시켜 한국전쟁의 전장으로 보내졌다.

○이처럼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현재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당당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조사 연구가 미미하다는 점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조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성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사료수집과 구술채록은 더욱 우선시되는 조사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육군 제1훈련소 훈련병들에 대한 생생한 구술채록과 그들이 소지한 사진 및 군 경험 사료들을 수집한다는 것은 향후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조사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며, 아카이브 구축에도 필수불가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 연구목적

○육군 제1훈련소의 제주 창설 및 운영은 제주 사회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게 되었다. 제주도민의 토지가 강제 수용되었고, 땔감 및 식량을 제공해야 했으며, 돌문화 유적이 유실되었거나 대정면 지역 식수난이 제기되는 등 많은 피해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부의 축적을 양상하기도 하였지만 부정부패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제주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조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시급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문헌과 구술조사 진행과 함께 사료 수집이 시급하다. 현재 생존해 있는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들에 대한 생생한 구술채록과 그들이 소지한 문헌, 사진 그리고 군 사료들을 수집함은 향후 조사 연구와 아카이브 구축에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 단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불명확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훈련장, 제1~9연대, 숙영지, 하사관교육연대 등 부대시설들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있다. 대부분 부대시설 위치는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의 지도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조사 연구를 통해 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분명히 하고 지도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실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경상남도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들이 구술한 훈련장의 위치, 교육훈련, 생활방식 등의 자료를 기초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훈련소 참여자 및 향토역사 전문가들에 대한 구술채록 자료의 비교 및 보충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와 전문가들이 보관하고 있는 문헌, 사진 그리고 증서 등의 사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지닌 사료들을 수집하여 훈련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제주 근대문화유산의 아카이브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3. 연구범위

○ 지역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이지만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이 위치했던 지역, 특히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주도를 조사 대상지로 지정한 이유는 2014년도 4 · 3 국가유공자 조사 당시 함양군을 찾아 군인 국가유공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10월 보훈의 날에 함양보훈회관을 방문하였고, 그 날 참석자 100명 이상이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거쳐 전선에 배치되었던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실제 경상남도 함양군 지역을 조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제주도에 거주하는 훈련소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 대상자 범위 :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인 신병 및 기간사병과 함께 계속해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해 관심을 지니고 문헌조사 및 부대시설 위치를 조사해 온 향토역사 전문가(5명)를 중심으로 반복적 면담조사와 부대시설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와 동반하여 자문을 구하면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제주에 거주하는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기간사병 및 훈련병)의 수가 적게 생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1950년 6 · 25전쟁이 발발하자 대부분 군인 적령기의 제주도 청년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하기 이전에 군 입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해병대 3기와 4기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과 신문기사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신병교육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하기 이전인 제주 제5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이 진행되었다. 이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훈련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제주지역에 생존하고 있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들의 수가 적었지만 향토역사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조사 연구에서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와 향토역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본토인과 다르게 제주도 출신으로서 이에 대한 남다른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다.

○ 시간적 범위 : 2019년 6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로 6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다.

○ 내용적 범위 : 〈표 Ⅰ-1〉를 근거로 하여 부대시설 위치를 조사하였다. 부대시설은 2017년 연구팀이 조사한 문헌과 현지답사를 통해 파악된 위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 Ⅰ-1〉의 부대시설 위치를 재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부대시설 위치를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였고, 지금까지 문헌조사와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의 사진과 비교하면서 진행하였다.

4. 연구기간

○ 연구기간 : 2019년 6월 1일 ~ 2019년 11월 30일(6개월)

5. 연구방법 및 절차

○ 본 연구에서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우선 문헌과 사료를 조사하였고, 다음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와 향토역사 전문가들이 작성한 문헌, 그리고 소지한 사진들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 또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위치에 대한 경험을 지닌 훈련소 참여자와 전문지식을 소유한 향토역사 전문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각각 2회에 걸쳐 심층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7월에 참여자와 전문가를 찾아가서 면담조사와 그들이 작성한 문헌과 더불어 소지하고 있는 부대시설 위치의 사진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부대시설 위치로 추정되는 장소들을 답사하는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8월에 1차 조사의 미

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대동하여 재차 부대시설 위치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3차 조사는 9~10월에 참여자와 전문가들에게 빌렸던 문서와 사진을 돌려주면서 2차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6. 연구내용

○본 조사 연구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연병장, 종합훈련장, 각 연대, 신병 및 하사관 숙영지, 하사관교육연대, 항만대, 수용대, 급양 생산대 등 부대시설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자료, 신문기사를 참조하였으며, 그리고 면담조사 및 현지답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향토역사 전문가를 통해 면담조사와 현지답사를 진행하면서 부대시설의 위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문헌 그리고 비공개 군사 체험 일기 등을 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지금까지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의 위치는 모슬포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신병과 하사관교육연대 숙영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들 숙영지들은 식수와 훈련할 수 있는 넓은 토지를 이용해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용대 기간사병으로 근무했던 신○준 선생님을 만나 수용대가 이전하게 된 상황과 위치 그리고 한글교육대의 기능 등을 숙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병참대에 근무했던 이○돈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병참대의 위치 그리고 급양 생산대의 기능과 위치에 대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규모와 더불어 보다 명확한 부대시설의 위치를 찾아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간적 한계 그리고 기간사병을 지낸 훈련소 참여자를 찾아 면담하기가 쉽지 않았다. 제주도 출신

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신병 혹은 기간사병으로 근무한 조사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만일 연구를 다시 시도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육지부의 조사 대상자(특히 장교 혹은 기간사병)를 물색하여 조사해 보고자 한다.

○ 부대시설의 위치에 대한 조사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지도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명확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지도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관련 근대문화유산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등록문화재는 현재까지 3곳(훈련소 본부, 강병대교회, 육군 제98병원)이 지정되었지만 가장 중요성이 인정되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 현재까지 지정되지 못하였고, 충혼탑 등도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다.

7. 연구의 기대 효과

○ 우선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관련 문화재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다. 모슬포 지역과 그밖에 분포하고 있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관련 문화유산 중에는 보존이 잘되어 있는 문화재도 있지만 보존 상태가 불량하거나 훼손 및 파괴된 문화재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대해 문화적 차원에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 계획이 필요하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관련하여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문화유산은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체계 작성 그리고 우선 축소된 복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다음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문화재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2020년은 6 · 25 발발 70주년을 맞는 해로서 한국 최초이며 최대 규모로 창설된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등록문화재로서 활용 가치의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다. 우선 한국군 전적지로서 제주도 초 · 중 · 고 학생들에게 한국전쟁의 실

상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이며, 당시 신병들이 훈련을 받았던 장소(모슬포 혹은 숙영지)에서 체험 활동을 통해 제주도민의 피해의 흔적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병 훈련소였다는 점에서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는 세계 관광지로서 그리고 세계평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관련 부대시설들이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계속해서 지정될 수 있다면 국가문화유산으로서의 등재를 기대해 볼만하다. 그리고 한국 최초이며 아시아의 최대 규모의 제주 육군 제1훈련소와 더불어 일본에서도 현재 찾아보기 어려운 일본군 전적지와 맞물려 국가문화유산으로서의 등재요인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1952년 당시의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일정 부분 복원이 진행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능성도 논의해 볼 수 있다.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000년대부터 제주 근대문화유산 연구는 활기를 띄고 있다. 특히 모슬포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전적지 조사를 통해 무려 13곳의 근대문화유산이 등재되기도 했다. 또한 제주4 · 3 관련 연구는 피해 실태, 자료수집, 유적지 등의 조사에 많은 기간을 할애하여 심도 높은 연구가 실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악주둔소가 처음으로 제주4 · 3 관련 제주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으로 등재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제주 근대문화유산 연구는 일제강점기 문화유산(공장, 가옥 등), 생활문화 공간(제주극장, 관광극장, 제주관광호텔 등) 그리고 해양 문화시설 등을 발굴, 조사하는 연구들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1951년에 제주도에 존재했던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연구는 시급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경상남도 함양군을 중심으로”의 조사로 인해 연속선상에서 시도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로 다수의 신병훈련을 담당하기 위해 창설된 육군 제1훈련소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는 단 3곳(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제409호), 강병대교회(제38호), 육군 제98병원 병동(제680호))만이 지정되어져 있을 뿐이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훈련장 범위, 훈련장 수, 훈련병과 교관(조교)의 수 등 훈련소의 규모가 아시아 최대의 신병교육 훈련장이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논산의 육군 제2훈련소로 신병교육의 역할이 이전되기 전까지 5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약 50만 명의 신병을 훈련시켜서 한국전쟁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한국의 육군과 전쟁의 역사 그리고 제주도에서 유일한 6 · 25 관련 육군 최초의 훈련소라는 점에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제주도를 넘어 한국 전역에 이르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다. 앞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조사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근대문화유산 자취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육군 제1훈련소의 제주 창설 및 운영은 제주도 사회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게 되었다. 제주

도민의 토지가 강제 수용되었고, 땔감 및 식량을 제공해야 했으며, 돌 문화 유적이 유실되었거나 대정면 지역 식수난을 제기되는 등 많은 피해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부의 축적을 양상하기도 하였지만 부정부패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제주도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조사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조사 연구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시급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문헌조사와 구술채록을 통해 시도되는 연구 진행과 함께 사료수집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들에 대한 생생한 구술채록과 그들이 소지한 문헌, 사진 그리고 군 사료들을 수집한다는 것은 향후 조사 연구와 아카이브 구축에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 단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불명확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연병장, 제1~9연대, 숙영지, 하사관교육연대 등 부대시설들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있다. 대부분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는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도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조사 연구를 통해 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여 지도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경상남도 함양군에 거주하는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들이 구술한 훈련장의 위치, 교육훈련, 생활방식 등의 자료를 기초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훈련소 참여자 및 전문가들에 대한 구술채록 자료의 비교 및 보충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더 나아가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와 전문가들이 보관하고 있는 문헌, 사진 그리고 증서 등의 사료를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이들의 지닌 사료들을 수집하여 부대시설의 위치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제주 근대문화유산 등록과 아카이브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질적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제주도를 조사 대상지로 지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도 4 · 3 국가유공자 조사 당시 경상남도 함양군을 찾아 군인 국가유공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10월 보훈의 날에 함양보훈회관을 방문하였고, 그 날 참석자 100명 이상이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거쳐 전선에 배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실제 경남 함양군 지역을 조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제주도에 거주하는 훈련소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제주도에 거주하는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기관사병 및 훈련병)가 소수 생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1950년 6 · 25전쟁이 발발하자 대부분 군인 적령기의 제주도 청년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하기 이전에 군 입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해병대 3기와 4기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과 신문기사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신병교육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하기 이전 제주 제5훈련소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제주도에 생존하고 있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들의 수가 많지 않았지만 향토역사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조사에서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참여자와 향토역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들은 본토인(육지)과 다르게 제주도 출신으로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남다른 경험을 기억하고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다.

넷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와 향토역사 전문가들이 작성한 문헌 그리고 소지한 사진들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훈련소 참여자와 전문지식을 겸비한 향토역사 전문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각각 2회에 걸쳐 심층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7월에 참여자와 전문가를 찾아가서 면담조사와 그들이 작성한 문헌과 더불어 소지하고 있는 부대시설 관련 사진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부대시설 위치로 추정되는 장소들을 탐방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2차 조사는 8월에 1차 조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대동하여 재차 부대시설 위치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3차 조사는 9~10월에 참여자와 전문가들에게 빌렸던 문서와 사진을 돌려주면서 2차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2–2. 연구범위

지역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이지만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이 위치했던 지역, 특히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 범위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인 신병 및 기관사병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관심을 지니고 조사해 온 향토역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부대시설 위치를 파악하는 등 심층적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9년 6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로 6개월 동안 조사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표 Ⅰ–1〉를 근거로 하여 부대시설 위치를 조사하였다. 부대시설 장소는 2017년 연구팀이 조사한 문헌과 현지답사를 통해 파악된 위치이다. 본 조사 연구에서는 〈표 Ⅰ–1〉의 부대시설 위치를 재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이를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지금까지 문헌조사 및 참여자와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의 사진과 비교 검토하면서 진행하였다.

〈사진 Ⅰ–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관련 면담조사

<table>
<tr><td>  </td><td>  </td></tr>
<tr><td>2019년 7월 3일(수) 향토사학 전문가</td><td>2019년 7월 3일(수) 향토사학 전문가</td></tr>
<tr><td>  </td><td>  </td></tr>
<tr><td>2019년 7월 30일(수) 6.25참전 유공자회 회장</td><td>2019년 7월 30일(수)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td></tr>
</table>



2019년 8월 2일(금) 향토사학 전문가



2019년 8월 8일(목) 훈련소 기간사병 참여자



2019년 8월 13일(화) 6.25참전 유공자회 지회장



2019년 10월 25일(금) 훈련소 기간사병 참여자

〈표 Ⅰ–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과 위치

부대시설	위치	부대시설	위치
제1연대	대정면(모슬포)	신병 제1숙영지	안덕면 동광리
제2연대	대정면(모슬포)	신병 제2숙영지	서귀면 상예리
제3연대	대정면(모슬포)	신병 제3숙영지	서귀면 하원리
교도연대	대정면(모슬포)	신병 제5숙영지	서귀면 상효리
운전병학교	대정면(모슬포)	하교연대 제1숙영지	안덕면 서광리
공병대	대정면(모슬포)	하교연대 제2숙영지	대정면(모슬포) 원수악
군예대	대정면(모슬포)	수용대	대정면(모슬포)
헌병대	대정면(모슬포)	급양 생산대	서귀면 상효리(중산간)
하사관교육연대	대정면(모슬포)	PX	대정면(모슬포)
제5연대	대정면(모슬포)	경비대	대정면(모슬포)
제6연대	대정면(모슬포)	보육대	대정면(모슬포)
제7연대	대정면(모슬포)	육군 제98병원	대정면(모슬포)
제8연대	대정면(모슬포)	병참대	대정면(모슬포)
제9연대	대정면(모슬포)	운전병학교	대정면(모슬포)

자료 : 김웅철 편저(2006), 고광명 · 황석규 · 송 훈(2017) 등에서 연구자 작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제주역사문화진흥원에 위탁하여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를 진행하였다.[1] 조사의 목적은 전적 · 유적지를 파악하여 대정읍 소재 알뜨르 비행장을 중심으로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기초자료로 삼는 것이었다. 특히 세계평화의 섬을 지정한 배경에 기초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일제강점기, 미군정 그리고 6 · 25 당시의 전적지를 조사한 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역사성 있는 전적지를 개발하여 관광지로서 자원화하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알뜨르비행장은 일제강점기의 군사시설이 총망라한 상태로 보존이 잘 되어 있으며, 제주 4 · 3의 비극과 6 · 25 당시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존재하고 있어서 한국의 고난의 역사성을 시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주 유일의 장소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본토를 넘어 아시아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사성을 지닌 특이한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적 관광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최초로 한국군 전적지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전적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한국군 전적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내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향후 대정읍 지역에 조성하려는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이 진척될 경우 이번 조사 결과물들은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3–2. 초대 훈련소장(백인엽)의 인터뷰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를 지휘했던 초대 훈련소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역임 소장들의 사망 일자는 〈표 II–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에 사망한 훈련소장은 3명에 불과하여, 백인엽(초대 훈련소장)이 2013년에 마지막 사망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9년 현재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구술채록이 얼마나 늦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백인엽의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관련 인터뷰는 2008년 『국방저널』[2]에 담겨져 있다. 불행하게도 그 외에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백인엽의 인터뷰 기사 혹은 면담조사는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인터뷰에서 “전쟁 능력 갖춰야 진정한 군인이다.”라는 주제로 면담을

1)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2) 백인엽(2008), 「전쟁 능력 갖춰야 진정한 군인이다」, 『국방저널』, 47–50.

이어갔다. 주요 면담 내용은 우선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점차 훈련소로서의 면모와 체계가 잡혀가는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초대 훈련소장을 시작하며 어려웠던 점과 안정화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일을 강조하였고, 마지막으로 짧은 훈련 기간과 낮은 연령의 신병들에게 전투 능력을 갖춰야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당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백인엽의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파악하는데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생존 시기에 초대 훈련소장을 찾아가 면담 및 현지답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조사가 늦게 시작되었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했던 교관과 기간사병, 그리고 신병(훈련병)에 대한 면담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장교(교관)와 기간사병(조교) 출신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제주도에서의 조사는 한계가 분명히 나타남에 따라 본토(육지)로 조사 영역을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3–3. 제주 제1육군훈련소 구술조사 – 경상남도 함양을 중심으로

본 연구팀은 2017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공모사업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경상남도 함양군을 중심으로』를 실시하게 되었다.[3] 연구팀이 직접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사진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신병들의 입소 동기, 훈련소 이동경로 등을 알 수 있었으며, 훈련장 위치, 천막막사 위치, 숙영지, 하사관교육연대 등 여러 훈련소 부대시설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파악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존재했다. 이미 80세가 넘는 고령자로 훈련소를 떠난 후 과거 제주도에서 자신이 생활했던 부대시설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대 16주에서 최소 3주에 이르는 신병훈련 생활이었기 때문에 전체 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체류기간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경상남도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의 훈련소 참여자들은 배가 고팠던 기억, 동기생 입소, 그리고 물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숙영지의 모습들을 중점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 나머지의 부대시설 위치 등은 체험하지 못한 참여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외지인의 시각으로 1950년대 제주도 사회의 생활상 및 제주도민에 대한 모습 등을 조사할 수 있었고, 그 당시 함양군보다 제주도의 생활상이 열악한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의 구술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3) 고광명 · 황석규 · 송 훈(2017),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 경상남도 함양군을 중심으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들을 통해 생생한 훈련소에서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증서 등의 사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7년 경상남도 함양군에 거주하는 육군 제1훈련소 참여자들이 구술한 훈련장의 위치와 규모, 이동경로, 교육훈련, 생활상 등의 자료를 기초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구술채록 자료의 비교 및 보충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는 현재까지 불명확한 훈련소 부대시설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훈련소의 지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장교 및 기간사병들 그리고 향토역사 전문가들로부터 소지하고 있는 문헌, 사진, 훈장 그리고 증서 등의 사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7년 연구에서 인식한 제주도민 시각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파악하고, 2017년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체험의 기억 및 사료들을 비교하여, 앞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조사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과물을 생산하는데 있다.

Ⅱ.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역사

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한반도는 자립해서 정부를 수립할 수 없었다. 연합군은 일본을 항복시키고, 자립으로 정부를 세울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한반도를 미국 군인에 의해 통치하는 미군정을 설치하게 된다. 미군정을 시작하면서 1946년 1월에 남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미군정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여 운영하게 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방경비대를 대한민국 국군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자립적인 군대를 운영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호국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을 내려 한국군을 모집하게 되었고, 형태는 의용병 제도였다. 하지만 초대 대한민국 정부는 의용병 제도보다는 의무병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임시방편으로 의용병 제도를 활용하면서, 이와 동시에 의무병 제도의 병역법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전환 이유는 의용병 제도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국군병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초대 정부는 1949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52호로 「병역임시조치법」을 공포하게 된다. 이는 표현대로 병역법을 제정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

1949년 8월 6일 초대 정부는 전문 8장 81조와 부칙으로 최초의「병역법」을 공포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한국군을 징병제로 모집하는 의무병역제도가 만들어지게 된다.[4] 이 의무병역법은 전문 8장 8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 20세에 달하는 자는 전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제23조), △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부윤(지금의 시장) · 구청장 · 읍 · 면장은 매년 1월 내지 2월 중 다음 징집연도 적령자에게 지정한 기일과 장소를 통해 등록통지서를 발송해야 하고(제25조), △병원(兵員)을 징집하기 위하여 징병구(徵兵區)를 설치하고(제27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실역(實役)에 적절한 자는 체격 등위의 우열에 따라 현역병 · 호국병 · 제1보충병의 순서로 징집한다(제34조)는 등의 징집 규정이 명기되어 있었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군제」 중에서 참조하였다.

다. 의무병역법에 의거해서 초대 정부는 1950년 1월 6일에 최초로 징병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지만, 국군 10만 명 편제 제한이 발효되면서 정기적인 징집이 어렵게 되었다. 결국 동년 3월 4일에 실시하고자 했던 징병검사는 보류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은 징집제도 및 국군 조직 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는 가운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전쟁이 발발하자 급기야 초대 정부는 의무징병이 아닌 가두징병제를 발동하여 국민병(國民兵)을 긴박하게 소집했으며, 또한 전장에 투입할 예비전투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각 시 · 군 · 구별로 제2국민병 예비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로서 인천상륙작전을 앞둔 1950년 8월 초까지 20만 명에 가까운 장정을 소집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 · 25전쟁은 지속적으로 한국군 병력 자원의 증대를 요구하게 되면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의무병제도의 시급성이 재차 대두되었다. 이에 초대 정부는 1950년 12월 16일에 「국민방위군설치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근거로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를 국민방위군으로 약 50만 명을 소집하게 되었다. 결국 전쟁의 여파로 인해 1949년 병역법에는 20세인 남자를 소집하도록 했지만, 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는 17세 남자로 연령을 낮추게 된다. 이들 약 50만 명의 신병들은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 정부는 국민방위군에 대한 신병 훈련이 시급하게 되었고, 전국에 51개 훈련소를 신설하여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51개 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받고 있는 국민방위군에게는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급기야 경상도 지역에서만 약 5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부정부패에 의한 사건이었으며, 이로서 사건에 관련된 주요 인사 5명은 처형당하게 된다.[5] 여기에서 초대 정부는 주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전장에 필요한 군인을 마구잡이로 소집하긴 했지만 용맹한 신병 훈련과 적절한 배급을 지원하며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훈련소의 적절한 위치를 모색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다.

〈표 Ⅱ–1〉 육군 제5훈련소 역대 소장

순위	계급	성명	취임일자	출생년도	사망년도
1대	준장	백인엽	1951.03.21	1923	2013
2대	준장	장도영	1952.01.07	1923	2012
3대	준장	오덕준	1952.08.12	1921	1980
4대(대리)	준장	권 준	1953.05.09	1895	1959
4대	중장	이응준	1953.06.15	1891	1985
5대	소장	이준식	1954.06.05	1901	1966
6대	준장	오창근	1955.01.12	1924	2004

출처 : 육군본부(1956); 육군본부(1970); 김웅철 편저(2006); 서귀포문화원(2018) 등에서 연구자 작성.

5)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의 하영식편(국민방위군사건)을 참조하였다.

그 당시 제주지역에서는 6 · 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16일 제주주정공장 위치에 육군 제5훈련소(대령 김병휘)를 설치하여 신병을 양성하고 있었다. 제주지역의 특수성[6]으로 인해 「국민방위군설치법」 제정 이전 1950년 8월 3일 중 · 고생으로 조직된 학도병 돌격대가 결성되어 훈련소에 입소하였으며, 이들과 더불어 제주도 출신 청년 약 3천 명이 동년 동월에 해병 3 · 4기로 지원 입대하여 훈련을 받게 된다. 이들은 짧은 훈련 기간만을 거치고 6 · 25 동란에 참여하게 되었고, 1950년 9월에는 해병대가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어 서울 탈환에 나섰고, 동년 9월 27일 중앙청에 태극기가 나부끼게 된다.

한국 육군 제1훈련소는 제주 이전에 대구에서 창설되어 시작된다. 초대 정부는 1950년 7월 11일 대구에 제25교육연대를 창설하였지만, 바로 다음 날인 7월 12일 경북편성관구사령부 제7교육대로 명칭을 개칭하였다. 또한 동년 8월 14일 국본 일반명령(육) 제46호에 의거 육군본부 직할 육군 제1훈련소로 재창설되었고, 동시에 동년 8월 26일 제1, 2, 3, 5, 6, 7, 8, 9교육대가 편성을 완료하게 된다.

하지만 초대 정부는 대구 육군 제1훈련소보다는 최남단인 제주도가 보다 안전하게 신병을 훈련시킬 수 있고, 이미 제주도에는 일제강점기 때 알뜨르비행장 인근에 군사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로 육군 제1훈련소 이전을 감행하게 된다. 특히 중국의 갑작스런 한국전쟁의 참전으로 인하여 전황이 불확실해졌고, 이에 초대 정부는 더욱 빠른 시일 내에 한국 군인을 강병으로 양성해야 할 사명 및 책임감을 지니게 되었다. 프란체스카 자서전[7]에는 1951년 1월 12일 당시 상황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대통령은 리지웨이 장군의 초청으로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고 대구를 방문하였다. (중략) 리지웨이 장군, 어째서 귀하는 싸울 태세를 갖추고 훈련이 되어 있는 한국 청년들을 무장시키지 않습니까? 어째서 약 50만 한국 청년들이 공산당과 싸울 수 있도록 무장시키지 않습니까? (중략) 어째서 귀하는 한국 청년들을 제쳐놓고 대신 일본을 무장시켜서 또 다시 일본을 열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중략) 대통령은 리지웨이 장군과 헤어진 뒤 신 국방장관 및 정일권 장군과 함께 전방을 둘러본 뒤 우리 군인들의 소총 또는 훈련장을 시찰하면서 훈련 광경을 지켜보았다.”

급기야 1951년 1월 14일 정부는 대구 육군 제1훈련소, 부산 육군 제3훈련소 그리고 제주 육군 제5훈련소의 통합을 추진하게 되며, 동년 동월 21일에 대구 및 부산 훈련소가 제주로 이동을 하여 제주 대정읍 상모리에 한국 육군 제1훈련소를 창설할 준비를 마치게 된다.[8]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전국에 산재되어있던 육군훈련소들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 육군 제1훈련소는 부산 육군 제3훈련소 그리고 제주 육군 제5훈련소와 거의 대등하게 신병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인 반면에,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한국 최초 통합 육군 제1훈련소로 새롭게 재창설되었으며, 이는 후에 논산의 육군 제2훈

6) 제주지역의 특수성은 제주4 · 3과 연관이 있다.
7) 프란체스카 도너 리(2010), 『6 · 25와 이승만–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기파랑, 380쪽.
8) 유광종(2010), ‘대구에서 품은 강군의 꿈, 제주 신병 훈련소’ 《중앙일보》 2010.11.09.

련소로 임무를 전이하게 된다. 이는 앞으로 한국 육군 훈련소에 제1훈련소를 지명하지 못하는 이유이며, 미래 육군 통합 훈련소가 다시 설치된다면 육군 제3훈련소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육군 제1훈련소는 대구에서 이전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제주도에서 최초로 창설된 한국 육군 제1훈련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 준비를 위해 백인엽 준장은 1951년 1월부터 제주에 부임하여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그 후 1951년 3월 21일 육군 제1훈련소 초대 소장으로 백인엽 준장이 취임하면서 창설을 종결하게 된다. 이후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충청남도 논산에 위치하고 있는 육군 제2훈련소로 대부분의 교육 및 훈련 기능이 옮겨가고, 남은 부대는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위치한 제1야전군 예하 제102보충대대로 기능이 옮겨간 1956년 1월 1일 국본 일반명령(육군) 제223호에 의거 공식적으로 폐쇄하게 된다.[9]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5년 동안 신병 훈련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약 5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양성하게 된다. 훈련소 초기에는 하루에 신병 500명 정도가 입소하였으나 전방의 전투가 한창 치열할 때는 동시에 약 8만 명이 입소하기도 하였다. 역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는 제주 청년들이 입소하기도 하였다.[10] 연구자의 지난 구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초기 훈련기간은 16주였으나 3주로 단축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3주도 채우지 않고 전방으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즉, 훈련소 초기와 전투가 한창일 때 신병들은 대체로 1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전장에 투입되었으며, 전투가 소강상태에 진입하면서 16주의 정규 훈련을 채웠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백선엽은"제1훈련소 신병훈련은 16주 과정이었다. 미군의 신병훈련 커리큘럼에 따라 기초훈련에서부터 병과별 특별훈련까지 교육시켜 배출했다. 전황이 다급해져 신병 수요가 많으면 단기훈련으로 배출하기도 했으나, 전선이 소강상태일 때는 규정대로 기간을 채워 배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11]

그리고 대정지역에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운영되고 있는 시기에 미군 고문단이 존재하여, 육군 제1훈련소에 다양한 지원을 하였고, 또한 중공군 포로수용소가 존재했으며, 반공을 둘러싼 많은 사건을 발생시켰고, 그리고 제5공군 군사고문 단원들이 주둔하였고, 이때부터 K-40 비행장으로도 알려지고 있었다. 또한 1951년 2월 1일부터 동년 7월 21일까지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3개월 동안 사관생도(1,073명)를 교육하였다."이곳에서 공사2기 사관생도들은 기본 군사훈련 과정을 수료했으며, 각종 장교 후보생들도 소정의 교육훈련(1~24주)을 마친 뒤 임관하여 각 분야에서 공군을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현대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12]

9) 김대영(2008), '제주 옛 육군훈련소 지휘소, 해병 훈련시설 등록문화재 확정'《제주일보》 2008.09.30.
10) 《서귀포문화대전(http://seogwipo.grandculture.net)》에서 참조
11) 백선엽(老兵이 걸어온 길, 103회-모슬포 제1훈련소)편 참조(http://bolg.naver.com/ohyh45).
12) 국방부(2008),『국방저널』7월호, 45쪽.

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역대 소장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1951년 3월 21일 초대 소장으로 백인엽 준장이 취임하여 1956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폐쇄될 때까지 6대에 걸쳐 7명의 훈련소장이 역임하였다.[13] 〈표 3〉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역대 소장에 대한 내역을 설명한 것이다.

1951년 3월 21일 초대 소장으로 백인엽 준장이 취임하여 1956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폐쇄할 때까지 6대에 걸쳐 7명의 훈련소장이 역임하였는데, 이들 소장들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에 대해 어떤 임무들을 수행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표 II–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역대 소장

순위	계급	성명	취임일자	출생년도	사망년도
1대	준장	백인엽	1951.03.21	1923	2013
2대	준장	장도영	1952.01.07	1923	2012
3대	준장	오덕준	1952.08.12	1921	1980
4대(대리)	준장	권 준	1953.05.09	1895	1959
4대	중장	이응준	1953.06.15	1891	1985
5대	소장	이준식	1954.06.05	1901	1966
6대	준장	오창근	1955.01.12	1924	2004

출처 : 육군본부(1956), 『6 · 25사변 국방전사(인사편)』, 193~196쪽; 육군본부(1970),『육군발전사』, 704~708쪽; 김웅철 편저(2006), 『强兵臺(陸軍第1訓練所)–그리고 摹瑟浦』, 고광명 · 황석규 · 송 훈(2017), 서귀포문화원(2018) 등에서 작성.

2–1. 백인엽(白仁燁)

1951년 1월부터 제주도에 들어와 임무를 수행하였고, 동년 3월 21일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소장으로 부임한다. 백인엽 초대 훈련소장은 2008년『국방저널』인터뷰에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소장으로서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초대 훈련소장으로 부임해 온 제주도는 한마디로 ‘맨땅에 해딩하는 꼴’ 격으로 막막하기만 하였다. (중략) 게다가 부산까지 밀려온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기는 문제까지 심각하게 거론되는 어려운 시기에 정예장병 육성은 발등의 불이요, 지상 과제이며 국가의 운명과 같았다. 숨 돌릴 틈도 없이 훈련소 조성 작업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훈련장과 숙영지를 짓고 연병장을 조성하는 등 이른 새벽부터

13)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하기 이전 제주에는 육군 제5훈련소가 있었다. 제주 육군 제5훈련소 초대 소장 김병휘 대령(1950.07.16), 2대 최 석 대령(1950.08.14)을 시작으로 3대 박기성 대령(1950.10.24), 4대 최 석 대령(1950.10.26), 5대 유승열 대령(1950.11.12) 그리고 6대 이형근 준장(1951.01.09) 등이 소장을 역임하였다.

늦은 밤까지 작업은 계속됐고,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첫 정규 신병훈련 장정 500여 명이 그 해 2월 중순에 도착하여 기초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그렇게 1년여 만에 7만여 명의 정예 신병을 육성해 전선에 투입하는 역할을 해냈다."[14]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1951년 1월 1일 창설 결정이 나고, 백인엽 소장이 취임(3월)하기 이전인 동년 2월 훈련소에 첫 신병이 입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신병 훈련을 위해 최소 단위의 부대인 훈련장과 숙영지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백인엽 초대소장은 육군 제1훈련소의 틀을 갖추기 위해 예하부대로 교도연대, 자동차운전병학교, 공병대, 군악(예)대, 헌병대, 하사관 교육연대 등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육군 제1훈련소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제1연대, 제2연대, 제3연대에서 더욱 많은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5연대, 제6연대, 제7연대, 제8연대 그리고 제9연대를 창설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백인엽 장군은 '전장에서 필승 요건은 크게 3가지'라며 '올바른 정신, 즉 애국심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강건한 체력이며, 고도의 무기 조작력과 전투기술 능력을 갖춰야 전장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런 점을 훈련병들에게 주입시켰고 상황이 급박한 만큼 훈련 강도는 강했으며 그것을 이겨내야 했다'고 그 당시 신병훈련소 상황을 설명하였다."[15] 백인엽 소장은 제주에서 강한 신병을 양성하는 훈련소의 초석을 다졌으며, 훈련장을 비롯해 숙영지, 막사, 훈련병의 의식주에 대한 기초를 다졌고, 훈련방식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백인엽 소장은 제주도에서 사망한 훈련병을 위한 위령탑을 세우기도 하였다. "6 · 25 전쟁 당시 새로운 병역법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국민방위군설치법이었다. (중략) 국민방위군 사령관이 예산을 횡령하면서 장병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모슬포에 도착하자마자 죽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하루에 30여 명이 죽는 경우도 있었고 훈련도 오후에 겨우 시켰다. 이마저도 이겨내지 못하고 숨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탑을 세웠다."[16]

백인엽 훈련소장은 1951년 1월부터 1952년 1월까지 재직하면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를 창설하고 기본적인 신병훈련소의 틀을 마련하였고, 가장 긴박한 한국전쟁 시기에 신병을 훈련시켜 전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했다.

2–2. 장도영(張都暎)

장도영 준장은 백인엽 후임으로 1952년 1월 7일에 제주지구위수사령관 겸 제주 육군 제1훈련소 2대 훈련소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백인엽 훈련소장은 훈련소 창설, 기반시설, 교육 프로그램, 훈련병 의식주 등의 훈련소 기초 틀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면, 장도영 훈련소장

14) 국방부(2008), 앞의 책, 48쪽.
15) 국방부(2008), 앞의 책, 48쪽.
16) 국방부(2008), 앞의 책, 50쪽.

은 보다 강하게 훈련된 장병을 육성하기 위해 제1 · 2 · 3 · 5숙영지를 건설하여 강도 높은 훈련장을 구축하였고, 예하부대로 수용대를 창설하였고, 이와 함께 훈련병의 보건 및 정신안정 교육에 주목하였다.

특히 훈련 중 사상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야전병원 육군 제98병원이 개설되어 많은 신병들의 치료를 담당하게 하였다. 육군 제98병원은 50여 개의 병동으로 400여 개의 병상을 가진 규모가 상당하였다. 그러나 현재 병동의 한쪽 면만이 그 위상을 알려주고 있고, 현재는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자신의 교육정신이 잘 나타낼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도록 지시하였고, 건축된 교회를 '강병대교회'로 명명하도록 하였다. 이 교회는 현재 제주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후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총칭이 '강병대'로 불러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백인엽 후임으로 육군 제1훈련소를 운영한 장도영 훈련소장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건강과 정신의 훈련 요소까지 겸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격려로 장도영은 1952년 7월 육군 소장으로 진급하게 되고, 1952년 8월 9일 훈련소장을 이임하면서 오덕준 준장에게 훈련소장직을 물려주게 된다.

2–3. 오덕준(吳德俊)

휴전협정 시기에 도달하면서 오덕준 준장은 1952년 8월 14일 제주지구위수사령관 겸 육군 제1훈련소장에 취임하게 된다. 오덕준 훈련소장은 부임 후 우선적으로 하사관 교육연대 숙영지에 대한 관심을 두고 하사관 교육연대 제1, 2숙영지를 건설하고, 신병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기고, 종전 후에도 한국 정예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하사관 훈련에 주목하게 된다.

특히 오덕준 훈련소장의 주안점을 둔 부대시설은 급양생산대를 조직하는 일이었고, 급양생산대를 통해 군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며 훈련을 할 수 있는 자급자족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제주도민들로부터 식량을 보급 받으면서 물량의 한계와 부정부패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오덕준 훈련소장은 예하부대로 경비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이 시기에 가장 골칫거리인 중공군 포로수용소의 소요와 안전을 위해 설치하게 된다.

이후 오덕준 훈련소장은 1953년 1월 21일에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총칭을 '강한 신병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강병대'로 결정하는데, 이는 전임인 장도영 훈련소장의 '강병대교회'에서 도입하고 있다.

2–4. 권 준(權 俊)

권 준 준장은 1953년 5월 9일부터 제주 육군 제1훈련소 4대 훈련소장 대리로 23일 동안 근무하게 된다. 한 달도 되지 않은 동안의 근무를 이행한 권 준 훈련소장에 대한 신병훈련소의 업적은 현재 시점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2–5. 이응준(李應俊)

이응준 소장은 1953년 6월 1일 제주 육군 제1훈련소 4대 훈련소장으로 취임한다. 이 당시 육군 참모총장 백선엽 대장은 이응준 소장이 육군 제1훈련소 소장 수락을 받기 위해 자신이 행동했던 일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육군 제1훈련소장) 적임자로 이응준 장군을 생각하였다. 우리 군의 원로인 이 장군은 그때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로 육군대학 총장으로 있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 그렇게 비대한 부대(육군 제1훈련소)일수록 인격적으로 훌륭한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육군대학으로 이 장군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였다. '어려우시겠지만 육군 제1훈련소장을 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노골(老骨)이나마 헌신해야겠지.' 이 장군은 선뜻 내 청을 받아주었다. 우리 육군 창군 원로에게 어려운 자리를 맡기는 것은 송구스럽지만, 불안해 노심초사하는 것보다 나은 일이었다. 그 예우로 나는 이 장군의 중장 진급을 상신해 부임과 동시에 진급이 됐다."[17]

이응준 훈련소장은 우선적으로 신병들의 교육 및 복지에 주목하고 있다. 1954년 1월 한글 교육대를 창설하여 신병들의 교육 신장을 돕고자 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3월 20일(4월?)에 해체시켰다. 이 시기에 신병의 대부분은 문맹이었는데 한글을 습득시키려는 이응준 훈련소장의 의미는 크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허약한 사병들의 몸을 회복하고 휴양을 돕는 시설인 보육대 설치와 동시에 장교와 기간사병의 가족들의 생활 및 건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PX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전쟁 포로들을 위한 공민학교도 설치하고 있다. 공민학교는 전쟁 포로들에게 한글, 역사, 지리, 산수 등을 가르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개월 동안 6년 과정을 배우는 속성과정으로 운영하였다.

하지만 이응준 훈련소장의 가장 주력한 업무는 특히 남북 간 휴전협정이 이뤄지는 시기에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기능을 논산 제2훈련소로 이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업무로는 훈련소 예하부대인 제1연대, 제5연대, 제8연대, 제9연대 등 신병훈련연대를 비롯하여 자동차운전병학교와 하사관 교육연대를 해체시키고 있다. 또한 신병 제1숙영지, 제3숙영지, 제5숙영지 그리고 하사관 교육연대 제1숙영지를 폐쇄시키고 있다.

백선엽 육군 참모총장이 이응준 중장에게 훈련소장의 어려운 임무라고 설명했던 부분은

17) 《http://blog.daum.net/koreanmarinecorps》의 백선엽(老兵이 걸어온 길, 103회)편 참조

바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기능을 점차 폐쇄시키고, 논산 육군 제2훈련소로의 기능 위임을 위해 추진된 첫 단계 업무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2–6. 이준식(李俊植)

이준식 준장은 1954년 6월 5일 제주 육군 제1훈련소 5대 소장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18] 이준식 훈련소장 부임의 목적은 제4대 훈련소장 이응준 중장이 진행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기능을 논산 육군 제2훈련소로 위임하면서 뒷정리와 함께 북한의 재침공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 훈련소 규모와 강병의 신병을 새롭게 훈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임기간 약 7개월 동안 이준식 훈련소장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를 재창설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우선 해체된 신병 제1, 2숙영지를 1954년 11월 15일에 새롭게 문을 열고, 신병훈련소 예하부대인 교도연대를 승격시켜 11월 18일에 교수대로 재창설하고 있다.

2–7. 오창근(吳昌根)

오창근 준장은 1955년 1월 12일 5대 훈련소장(이준식)의 뒤를 이어 제주 육군 제1훈련소 6대 훈련소장을 맡게 된다. 오창근 훈련소장은 마지막 육군 제1훈련소장으로서 훈련소 해체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약 50여만 명의 신병을 배출했던 거대한 통합 신병훈련소를 해체하는 작업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오창근 훈련소장은 1956년 1월 1일 이전까지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및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해체하고 이양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식을 찾아야 했으며, 해체 진행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됐다. 해체 작업 중에는 지금까지 제주도민으로부터 강제 수용했던 토지 반환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곧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최초 신병훈련소로서의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5년 동안 강병 군인을 양성하고 역사 속으로 잠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의 이준식편 참조

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설치 및 위치

3–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시설

1951년 3월 21일 창설된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여러 번에 걸쳐 예하부대 및 훈련장 시설들이 설치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규모는 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활용하고 있어, 미국 보병학교 훈련장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제주도 전체 규모의 절반 정도였다. 훈련소는 주로 현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부대시설 및 훈련장이 배치되고 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훈련장, 예하부대 및 시설들은 〈표 Ⅱ–3〉에서 알 수 있듯이 대략 30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백인엽 초대 훈련소장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규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훈련장 크기에 대해 설명하자면 미국 보병학교 훈련장은 제주도 크기 정도였지만 우리는 제주도의 절반을 훈련장으로 하였다."[19] 하지만 "제주 육군 제1훈련소 크기는 82만 6,446㎡~99만 1,735㎡(25~30만평)에 달하며 훈련장까지 포함하면 그 면적은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창설 초기에 만들어진 예하부대 및 시설들은 옛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주둔했던 장소이며, 미군정 시기에는 국방경비대 제9연대가 주둔했던 장소이고, 6 · 25전쟁 발발 직후에는 대한민국 육군 제5훈련소 제1교육대가 있던 모슬포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배치하게 된다. 하지만 신병 훈련소 병력이 계속해서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훈련소의 규모와 범위는 모슬포 지역을 넘어 대정 지역 전체 그리고 안덕면 화순 및 서귀포 일대까지 각개전투 및 야전훈련 등의 훈련교장으로 사용되는 신병 숙영지를 설치하게 된다. 특히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에 제1숙영지, 서귀면 상예리에 제2숙영지, 하원리 법화사(法華寺)에 제3숙영지, 서귀면 상효리에 제5숙영지를 설치하게 된다. 또한 안덕면 서광리에는 하사관 교육연대 제1, 제2숙영지를 설치하여 중간 간부를 육성하였다.

더 나아가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제5, 6, 7, 8, 9연대를 확대해서 편성할 뿐만 아니라 각 연대 및 숙영지 막사들은 공병대와 훈련병들이 직접 작업을 통해 지어졌다. "훈련소 막사는 훈련병들이 야외 활동을 나갔다 복귀할 때마다 말, 소 등 동물의 출입을 막기 위해 밭에 쌓아 둔 돌담을 하나 둘씩 들고 와서 지을 정도로 너무 열악했지만 훈련병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꾸었다."[21] 이 때 인성리에 존재했던 방사탑들은 완전히 유실하게 되었는데 1959년 이후 현재는 새롭게 복원되어 있는 상태이다.[22]

19) 백인엽(2008), 앞의 책, 49~50쪽.
20) 백인엽(2008), 앞의 책, 44쪽.
21) 백인엽(2008), 앞의 책, 44쪽.
22) 1950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육군 제1훈련소 막사를 건축할 당시 마을 돌탑이 훼손 되었다.

이처럼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게 되었는데 6 · 25전쟁의 상황과 연계되면서 크게 3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다(〈표 Ⅱ–3〉 참조).

제1단계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초기 단계로서 1951년 백인엽 준장이 초대 훈련소장(1951년 3월 21일~1952년 1월 6일)으로 재임한 시기이다. 백인엽 준장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하는 3월 이전에 제주도에 입도하여 훈련소의 면모를 갖추는 사전 작업을 시행한다. 새로 취임한 훈련소장은 신병을 훈련할 교관을 확보하는 작업으로 가장 먼저 교도연대 예하부대를 만들었다. 그 후에 훈련소 시설을 확충, 건설하고, 보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병대를 설치한다. 더 나아가 훈련소는 기간사병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 자동차운전병학교, 하사관학교 교도연대, 군악(예)대, 헌병대 등을 조직하고 있다. 그리고 훈련소는 신병을 교육하기 위해 대구에서 먼저 창설된 제1, 2, 3연대를 비롯해서 제5, 6, 7, 8, 9연대를 새롭게 창설하고 있다. 결국 백인엽은 초대 훈련소장으로서 신병훈련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작업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단계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활성화 단계로서 2대 장도영 준장(1952년 1월 7일~1952년 8월 11일)과 3대 오덕준 준장(1952년 8월 12일~1953년 5월 8일)이 재임한 기간으로 가장 많은 신병들이 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전장에 투입되었던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신병 제1, 2, 3숙영지를 비롯하여 하사관교육연대 제1, 2숙영지를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예하부대로 수용대, 급양생산대, 경비대 그리고 야전병원 육군 제98병원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신병들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강병대교회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훈련소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며, 강한 병사를 양성하여 전쟁에 투입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3단계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해체 단계로서 4대 대리 권 준 준장(1953년 5월 9일~1953년 6월 14일), 4대 이응준 중장(1953년 6월 15일~1954년 6월 4일), 5대 이준식 소장(1954년 6월 5일~1955년 1월 11일) 그리고 6대 오창근 준장(1955년 1월 12일~1955년 12월 31일)이 재임한 기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재차 창설되는 예하부대 및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훈련소 조직들이 해체되며, 거의 모든 훈련소의 기능들이 논산 및 다른 부대로 이전하는 시기이다. 결국 1953년 휴전협정이 임박하면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기능은 대부분 폐쇄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이응준 훈련소장의 부임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와 시설들의 해체 조짐을 알리고 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쌀을 모아 1959년에 일부를 복원하였고, 2001년에 나머지 2기 탑이 복원되었다. 탑은 마을 안 농로와 농지 가운데 있어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4기 탑이 모두 원래 모습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 1959년 복원한 방사탑은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었고, 2001년 복원된 2기는 비지정 방사탑이다. 《서귀포문화대전(http://seogwipo.grandculture.net)》의 인성리 방사탑 편을 참조하였다.

〈표 Ⅱ–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단계별 특성

단계	훈련 소장	계급	재임 기간	특성
제1단계 (초기 단계)	1대 백 인 엽	준장	1951.03.21.~1952.01.06	교도연대 예하부대, 공병대, 자동차운전병학교, 하사관 교육연대, 군악(예)대, 헌병대, 제1, 2, 3, 5, 6, 7, 8, 9연대
2단계 (활성화 단계)	2대 장 도 영	준장	1952.01.07.~1952.08.11	신병 제1, 2, 3숙영지, 하사관교육연대 제1, 2숙영지, 수용대, 급양생산대, 경비대, 육군 제98병원, 강병대교회
	3대 오 덕 준	준장	1952.08.12.~1953.05.08	
제3단계 (해체 단계)	4대 대리 권 준	준장	1953.05.09.~1953.06.14	훈련소 조직 해체, 훈련소 기능을 논산 및 다른 부대로 이전
	4대 이 응 준	중장	1953.06.15.~1954.06.04	
	5대 이 준 식	소장	1954.06.05.~1955.01.11	
	6대 오 창 근	준장	1955.01.12.~1955.12.31	

〈표 Ⅱ–4〉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창설 및 해체

부대 명	창설일자	위치	해체일자	비고
제1연대	1950.10.28	경상북도 대구	1953.12.18	1955.03.05 재개
제2연대	1950.10.28	경상북도 대구		
제3연대	1950.10.28	경상북도 대구		
교도연대	1951.03.27	대정면(모슬포)		교수단으로 개칭
운전병학교	1951.05.17	대정면(모슬포)	1953.12.01	
공병대	1951.06.11	대정면(모슬포)		
군악(예)대	1951.11.13	대정면(모슬포)		
헌병대	1951.11.13	대정면(모슬포)		
하사관 교육연대	1951.06.20	대정면(모슬포)	1954.01.20	
제5연대	1951.06.20	대정면(모슬포)	1953.12.18	1955.03.05 재개
제6연대	1951.08.17	대정면(모슬포)		
제7연대	1951.08.17	대정면(모슬포)		
제8연대	1951.10.16	대정면(모슬포)	1953.12.18	
제9연대	1951.10.16	대정면(모슬포)	1953.11.15	
신병 제1숙영지	1952.02.13	안덕면 동광리	1954.05.05	1954.11.15 재창설
신병 제2숙영지	1952.02.13	서귀면 상예리	1954.09.09	1954.11.15 재창설
신병 제3숙영지	1952.02.13	서귀면 하원리	1953.09.21	
신병 제5숙영지	1952.03.15	서귀면 상효리	1954.04.18	서귀면 법호촌
하교연대 제1숙영지	1952.10.04	안덕면 서광리	1953.12.24	하사관 교육연대
하교연대 제2숙영지	1952.10.04	대정면(모슬포)		하사관 교육연대
수용대	1952.05.20	대정면(모슬포)		
급양생산대	1952.10.	서귀면 상효리		1019–1번지'생산듸'

부대 명	창설일자	위치	해체일자	비고
PX	1953.08.01	대정면(모슬포)		
경비대	1953.02.07	대정면(모슬포)		
보육대	1953.09.22	대정면(모슬포)		
육군 제98병원	1952.06.	대정면(모슬포)		군산으로 이설
강병대교회	1952.05.20	대정면(모슬포)		
한글교육대	1954.01.22	대정면(모슬포)	1954.03.20	
공민학교	1954.04.05	대정면(모슬포)		
교수단	1954.11.18	대정면(모슬포)		교도연대 교수부 합병 창설

자료 : 김웅철 편저(2006), 『역사사진자료집: 强兵臺(陸軍第1訓練所)–그리고 摹瑟浦』, 고광명 · 황석규 · 송 훈(2017)고광명 · 황석규 · 송 훈(2017), 서귀포문화원(2018) 등에서 작성.

3–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예하부대 시설의 위치

지금까지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명확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했다. 다음 두 장의 그림은 현재까지 대정읍(모슬포)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이다.

〈그림 Ⅱ–1〉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그림 위쪽 편에 검은색 수기로 년도를 1952년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을 당시 대정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일제강점기 군사시설, 육군 제5훈련소, 그리고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뿐만 아니라 현재의 공공시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만을 위한 지도체계가 아니다. 셋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제5, 6, 7, 8, 9연대가 병렬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본토에서 LST를 타고 제주도에 온 이후 신병들이 첫 발을 내딛는 화순항의 항만부대를 비롯하여 충혼비도 검은색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 검은색 수기는 대정읍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향토역사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다섯째, 대정읍을 중심으로 한 역사 지도체계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벗어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림 Ⅱ–2〉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08년 제주역사문화진흥원에 위탁한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의 조사 과정에 기반하고 있다. 이 그림은 보고서의 연구진들이 1년 동안 대정읍 지역 향토역사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면서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추적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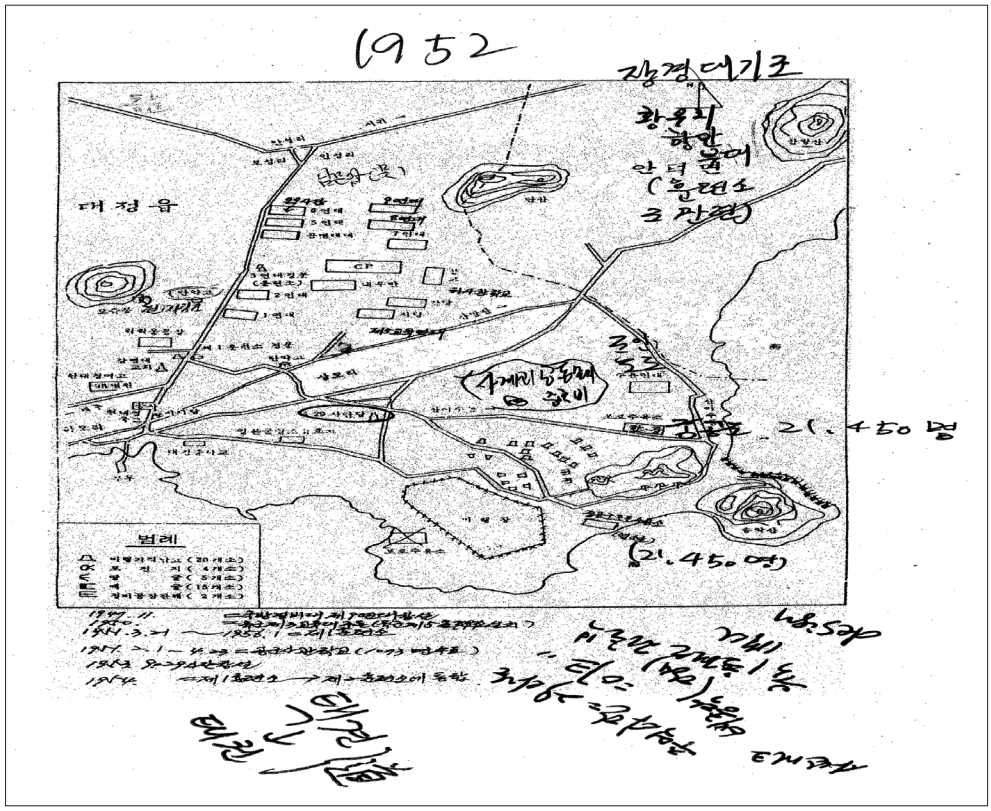
〈그림 Ⅱ–2〉를 살펴보면 첫째, 〈그림 Ⅱ–2〉는 〈그림 Ⅱ–1〉과 다르게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에 중점을 두고 작성된 것이다. 둘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한국군 부대시설뿐만 아니라 미(美)군사고문단 등 미군 부대시설의 위치도 포함시켜 작성되어 있다. 셋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제5, 6, 7, 8, 9연대 표시가 직렬로 되어 있어서 〈그림 Ⅱ–1〉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워커(우남)연병장인 경우는 도로를 중심으로 〈그림 Ⅱ–1〉과 상반된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넷째, 〈그림 Ⅱ–2〉에는 〈그림 Ⅱ–1〉과 비교해서 다른 부대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결국 〈그림 Ⅱ–1〉과 〈그림 Ⅱ–2〉는 이번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보다 명확히 작성하는데 있다면, 좀 더 〈그림 Ⅱ–1〉과 〈그림 Ⅱ–2〉를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첫째,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제5, 6, 7, 8, 9연대 위치가 직렬 혹은 병렬로 표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과연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내 연대들의 위치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두 그림은 제1, 2, 3연대의 위치도 상이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둘째, 〈그림 Ⅱ–1〉과 〈그림 Ⅱ–2〉에서 강당과 제2연대의 모습이 상반되게 표시되어 있는데 어느 그림이 훈련소 부대시설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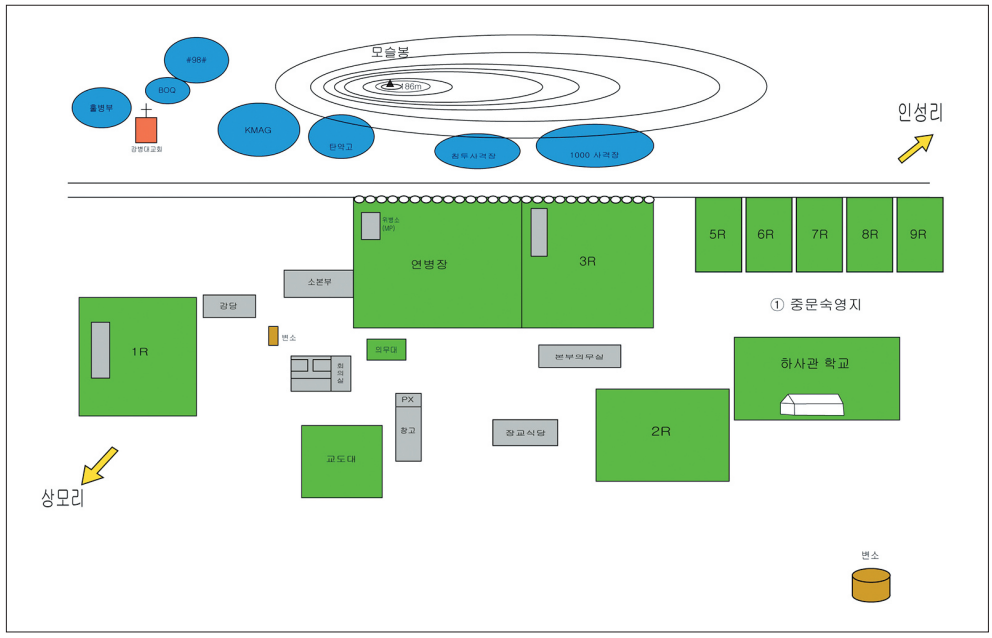
〈그림 Ⅱ–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위치



자료 : 김웅철 제공

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그림 Ⅱ–2〉에는 공병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창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공병대의 부대 위치는 과연 〈그림 Ⅱ–1〉에서 표시되어 있는 위치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남연병장 혹은 워커연병장이라 불리는 연병장의 위치도 두 그림은 상반되게 표시되어 있는데 과연 어느 그림이 맞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조사는 주로 대정읍 지역에 한정하여 진행되었다. 하지만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규모는 대정읍 지역을 넘어서고 있어, 이외에도 훈련소 부대시설의 위치가 분명하지 않아 조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정지역 이외의 훈련소 부대시설의 위치를 자세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Ⅱ–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위치(자체 제작)



자료 : 연구팀 자체 제작

Ⅲ.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조사결과

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전면도와 정문

1-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전면도

〈그림 Ⅲ-1〉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 뒤편과 평화의 탑 사이에 새롭게 단장한 대정읍 안내지도가 세워진 표지판이다. 이 지도는 대정읍 지역 다크투어 유적을 알리는데 있고, 유적 안내지도에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그림 Ⅱ-1〉과 〈그림 Ⅱ-2〉와 함께 비교하면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사진 Ⅲ-1〉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편집해서 살펴본 것이다.

〈사진 Ⅲ-1〉 대정읍 다크투어 유적 안내지도 표지판



자료 :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사진 Ⅲ–2〉는 대정읍 지역 다크투어를 위한 근대 제주의 전적지 및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면 〈표 Ⅲ–1〉과 같다.

〈사진 Ⅲ–2〉 대정읍 유적 안내지도 내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자료 :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표 Ⅲ–1〉 대정읍 유적 안내지도 내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순번(그림)	부대시설	순번(그림)	부대시설
1	육군 제1훈련소(강병대) 본부	11	종합훈련장
2	정훈부	12	강병대연병장(우남연병장)
3	교도연대(교도대)	15	육군 제98병원
4	5연대	16	강병대교회
5	6연대	18	침투(각개)훈련장
6	7연대	29	훈련소장 관사
7	8연대	30	화순항만대
8	9연대	31	장정대기소
9	공병대	36	배출대
10	법무부(헌병대)	43	800병기병참중대

자료 : 〈사진 Ⅲ–2〉에서 연구자 작성

〈표 Ⅲ–1〉에서는 대정읍 다크투어 유적 안내지도를 통해 지금까지 연구팀에 의해 조사하지 못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Ⅲ–2〉에서 나타난 부분은 정훈부, 종합훈련장, 침투(각개)훈련장, 훈련소장 관사, 화순항만대, 장정대기소, 800병기병참중대 등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도 역시 존재한다. 대정읍 내 부대시설로서 안내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부대시설도 존재하고 있지만, 특히 이 지역을 벗어난 부대시설들은 안내지도로서 갖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표 Ⅲ–2〉 〈표 Ⅱ–3〉과 〈표 Ⅲ–1〉의 부대시설 합산

부대시설	위치	부대시설	위치
제1연대	모슬포	제9연대	대정읍
제2연대	모슬포	신병 제1숙영지	안덕면 동광리
제3연대	모슬포	신병 제2숙영지	상예동
교도연대	모슬포	신병 제3숙영지	하원동
운전병학교	모슬포	신병 제5숙영지	상효동
공병대	모슬포	하교연대 제1숙영지	서광리
군악대	모슬포	하교연대 제2숙영지	원수악
헌병대	모슬포	수용대	모슬포
하사관교육연대	모슬포	급양 생산대	모슬포 중산간
제5연대	대정읍	PX	모슬포
제6연대	대정읍	경비대	모슬포
제7연대	대정읍	보육대	모슬포
제8연대	대정읍		

자료 : 〈표 Ⅱ–3〉과 〈표 Ⅲ–1〉에서 작성

〈표 Ⅲ–3〉은 〈그림 Ⅱ–1〉과 〈그림 Ⅱ–2〉 그리고 〈사진 Ⅲ–2〉를 종합하여,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한 것이다.

〈표 Ⅲ–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의 명칭과 위치

부대시설	위치	부대시설	위치
제1연대	모슬포	신병 제1숙영지	안덕 동광리
제2연대	모슬포	신병 제2숙영지	상예동
제3연대	모슬포	신병 제3숙영지	하원동
교도연대	모슬포	신병 제5숙영지	상효동
운전병학교	모슬포	하교연대 제1숙영지	서광리
공병대	모슬포	하교연대 제2숙영지	원수악
군악대	모슬포	수용대	모슬포
헌병대	모슬포	급양 생산대	모슬포 중산간
하사관교육연대	모슬포	PX	모슬포
제5연대	대정	경비대	모슬포
제6연대	대정	보육대	모슬포
제7연대	대정	수용대	모슬포
제8연대	대정	침투(각개)훈련장	모슬포
제9연대	대정	훈련소장 관사	모슬포
정훈부	모슬포	화순 항만대	안덕면 화순리
종합훈련장	모슬포	장정대기소	안덕면 화순리

자료 : 〈그림 Ⅱ–1〉, 〈그림 Ⅱ–2〉, 〈사진 Ⅲ–2〉를 근거로 작성.

1–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

1–2–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주도로변

1–2–2. 규모

일주도로변 좌우측에 각 1개의 기둥으로 설치되어 있고, 기둥 간의 길이는 17m이고, 높이는 7.8m이다.

1–2–3. 설치 및 해체년도

향토역사 전문가 이달수의 증언에 의하면 "정문은 1952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 두 기둥 사이의 폭이 좁았다. 1953년에 다시 설치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했다.

1–2–4. 개요

신병들이 입소하는 출입문으로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전장으로 배속되기 위해 출소하였던 건축물이다. 두 기둥의 측면에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간판을 걸었던 구부러진 철근이 보인다. 한쪽 기둥에는 '제주도위수지구사령부', 다른 기둥에는 '육군 제1훈련소'의 간판이 걸려 있었다.

향토역사 전문가 이달수의 증언에 의하면, "훈련소의 기능이 폐쇄된 이후에 정문의 각 기둥에는 '반공'과 '방첩'의 글씨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 정문을 '반공탑'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운영되는 시기에는 정문에 초소가 설치되어 훈련소의 출입을 통제했지만 현재 초소의 흔적은 사진으로만 남겨져 있다.

정문은 현재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사진 Ⅲ–3〉에서 볼 수 있듯이 차량 방호막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상태로 정문을 문화재로 보존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이용한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현재 모습과 다름없는 정문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 Ⅲ–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23]



자료 :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사진 Ⅲ–4〉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초소



자료 : 김웅철 소장

23) 2019년 11월 16일 재차 방문 시에는 철재 방호막이 철거되고 그 대신에 주변 흙을 파고 차량 돌진을 방어하는 벽돌이 설치되어 있었음.

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은 신병을 효율적이고 강한 병사로 훈련시키기 위해 설치되어 졌다. 이러한 훈련방식에 대해 백인엽 초대 훈련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본식과 미국식이다. 일본식은 한국의 도 단위에 해당하는 현(縣)에서 1개 사단 혹은 연대가 신병을 뽑아 교육을 시키고 평생을 그 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식은 한마디로 중앙 공급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교육기관에서 신병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전선의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가 모두 장단점이 있었다. 대한민국 첫 신병훈련소로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켜야 할지도 당시 큰 문제였던 것이다. 이를 두고 육군 본부 고위 관계자와 미8군 참모부장(준장 호디스)이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사흘 동안 갑론을박한 끝에 미국식 보충 훈련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한다.[24]

이와 관련하여 백선엽은 "우리 군의 신병보충 체제도 처음에는 각 부대에 맡겨져 있었다(일본식). 사단별로 신병을 훈련시켜 결원이 생기는 예하부대에 공급하도록 했다. 그러다 현리전투와 같이 사단 전체가 궤멸되는 대규모 인력 손실이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신병을 훈련시켜 공급하는 양산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미국식)."[25]

모슬포 지역의 육군 제1훈련소는 급박하게 부대시설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천막으로 만들어졌다. "제주도 모슬포에 있는 육군 제1훈련소는 참으로 대단한 규모의 천막 도시로 형성되었다. 10만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부대의 막사가 거의 천막이었다. 전시에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막사를 지을 겨를도 형편도 못 되었던 것이다."[26]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어려움도 백선엽은 토로하고 있다. "모슬포는 땅은 넓었지만 훈련소로는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 곳이었다. 우선 물이 부족해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화산지대로 빗물이 모여 흐르지 않고 모두 지하로 흡수된다. 그러니 강이 있을 수 없고,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훈련소로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니었다. 훈련 시설과 천막이 비에 젖고 바람에 날려 훈련에 지장이 많았다. 연중 비바람 때문에 배가 다닐 수 없는 날씨가 90여 일이라고 했다. 그런 날에는 목포에서 제주도를 오가는 해군 LST가 운항할 수 없어서 장정 수송이나 신병 훈련에 지장이 많았다. 하루 평균 500여 명씩 배출되는 신병이 육지로 나가지 못하면 일선에서는 아우성이었다. 반대로 입소 장정들이 들어오지 못해 훈련소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던 것이다."[27]

24) 백인엽(2008), 앞의 책, 48쪽.
25) 백선엽(老兵이 걸어온 길, 103회)편 참조.
26) 백선엽(老兵이 걸어온 길, 103회)편 참조.
27) 백선엽(老兵이 걸어온 길, 103회)편 참조.

2–1. 연대

2–1–1. 위치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중심부에서 대정읍 인성리에 이르는 일주도로변에 직렬 혹은 병렬로 배치되어 있었다. 다크투어 안내지도에는 연대들이 병렬 형태를 띠고 있지만, 기간사병 이성돈의 증언에서는 “직렬로 배치되어 차례대로 부대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특이한 설명으로 향토역사 전문가 이달수에 의하면 “제5연대와 제6연대는 서로 바뀌어서 배열되어 있었다. 학생과 일반인들을 위해 단산 쪽으로 옆길을 만들어 이용하게 하였고, 길을 크게 내어서 훈련소 업무만을 수행하는 도로로 만들었다”고 한다.

〈사진 Ⅲ–5〉 연대 배치 장소와 제9연대 마지막 장소



자료 :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자료 :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2–1–2. 설치 및 해체년도

백인엽 초대 소장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 이전 제주도에 입도하여 공병대와 함께 처음 입소하는 신병들을 훈련시키고 관리 운영하기 위해 제1, 2, 3연대를 설치한다. 즉, 3개 연대 설치는 이미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기 이전에 구상되어 있었다.

향토역사 전문가 이달수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를 창설하기 위해 공병대가 이미 입도하여, 보성초등학교에 훈련소의 기초 부대시설들을 구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Ⅲ–4〉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연대별 현황

연대	창설일자	위치	해체일자	비고
제1연대	1950.10.28	대정면(모슬포)	1953.12.18	1955.03.05 재개
제2연대	1950.10.28	대정면(모슬포)		
제3연대	1950.10.28	대정면(모슬포)		
제5연대	1951.06.20	대정면(모슬포)	1953.12.18	1955.03.05 재개
제6연대	1951.08.17	대정면(모슬포)		
제7연대	1951.08.17	대정면(모슬포)		
제8연대	1951.10.16	대정면(모슬포)	1953.12.18	
제9연대	1951.10.16	대정면(모슬포)	1953.11.15	

자료 : 〈표 Ⅱ–3〉과 동일.

2–1–3. 개요

〈표 Ⅲ–5〉에서 알 수 있듯이 공병대에서 설치한 3개의 연대는 수용할 수 있는 신병의 수가 최소 14,000명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각각의 연대가 신병 4,667명으로 구성된 상태로 본다면 상당히 밀집되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1951년 7월부터 신병 수용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연대 역시 증설하고 있음이 입증된다. 1952년 12월까지 신병의 수용규모가 67,200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5, 6, 7, 8, 9연대가 차례대로 1951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신병 연대가 증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5〉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입소자 현황

시기	1일 입소자	훈련기간	수용규모	비고
1951.02.13.	500명	4주	14,000명	
1951.04.01.	250명	8주	14,000명	
1951.07.01.	300명	12주	21,600명	입소일자 주당 7일에서 6일로 단축
1951.09.24.	500명	12주	36,000명	
1952.01.02.	500명	16주	48,000명	
1952.08.01.	600명	16주	57,000명	8주 이상 훈련 받은 신병만 총 병력에 삽입
1952.12.15.	700명	16주	67,200명	훈련기간 입소자 수 고정

출처 : Kenneth W. Myers,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KMAG's War time Experiences,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Undated)", 144~153쪽, RG338, Military Historians Files, Box 12~13, NARA(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4), 『통계로 본 6 · 25전쟁』, 138쪽)

〈사진 Ⅲ–6〉에서 알 수 있듯이 연대 막사는 돌과 나무를 기본 재료로 해서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막사들 뒤로 단산을 볼 수 있어서 제7, 8, 9연대 중 한 연대의 막사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숙식하는 막사'라는 사진에서 보듯이 잘 정돈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기간사병으로 근무한 이성돈의 증언에 의하면, "1개의 막사에는 2개 중대가 함께 사용을 하였고, 인원은 500명 정도였다. 1개 중대에 기간사병은 7~8명이 근무했는데, 이들은 신병을 학과장으로 인솔 및 식사 · 취침 · 기상 등을 관리했다."고 했다.

〈사진 Ⅲ–6〉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연대 막사



자료 : 김웅철 소장



자료 : 김광수 제공

2–2. 연병장

2–2–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과 함께 일주도로변에서 시작하여 중간에 대정고등학교와 함께 멀리 모슬봉이 보이고 있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추정을 한다면 대정고등학교가 그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Ⅲ–7〉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연병장(현재)



자료 :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2–2–2. 설립 및 해체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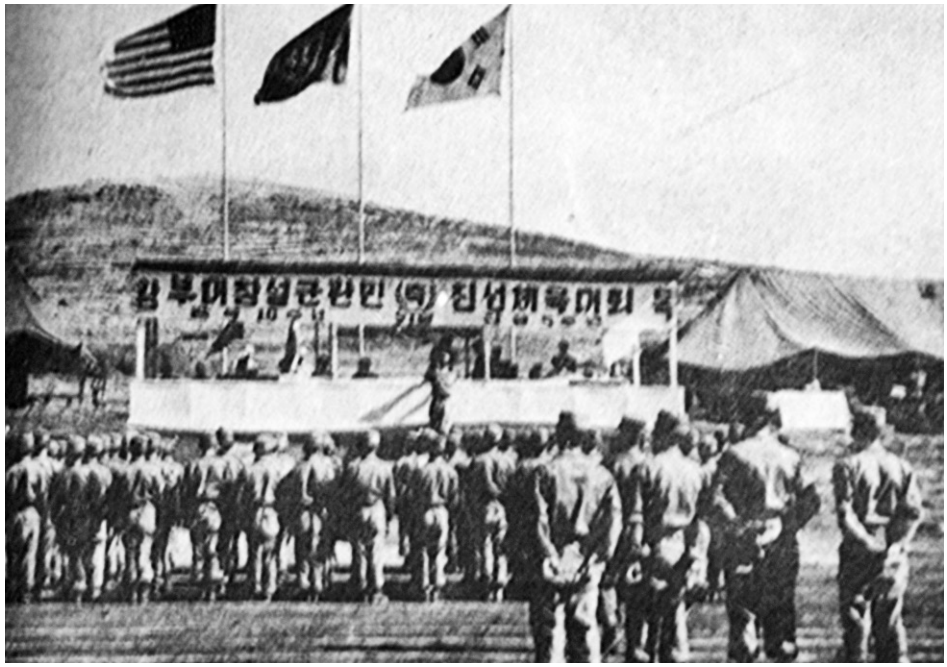
제주 육군 제1훈련소를 창설하는 1951년부터 해체되는 1956년까지 존재했다.

2–2–3. 개요

연병장은 창설 당시부터 개장하였는데, 이곳에서 훈련소 창설식이 거행되었다. 하지만 연병장의 명칭은 이중으로 명명되고 있다. 하나의 명칭은 1951년 창설 당시 한국 초대 대통령의 호를 따서 '우남(雩南)연병장'으로 칭하였다.[28] 또 다른 명칭은 '워커연병장'이란 표현이다. 6 · 25 동란은 1950년 10월 25일부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또다시 유엔군과 한국군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미8군사령관 겸 주한유엔군지상군사령관 월튼 해리스 워커(Walton Harris Walker) 중장이 모든 지상군을 통합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워커 사령관은 1950년 12월 23일 중공군 개입에 따른 방어 작전을 수행하고자 의정부 남쪽의 영연방 제27여단으로 가는 도중 국군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게 된다. 이에 한국군과 유엔군은 워커 사령관을 애도하게 되었고, 이를 기리기 위해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연병장의 명칭을 '워커연병장'으로 명명하게 된다. 연병장은 신병 훈련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군관민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28) 한글 표기가 잘못된 경우가 있었다. 제주신보에는'운남'그리고 다른 문헌에는'운암'으로 표기되고 있다.

〈사진 Ⅲ–8〉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연병장(과거)



자료 : 김웅철 소장

2–3. 종합훈련장

2–3–1. 위치

종합훈련장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있는 모슬포 지역을 중심으로 모슬봉, 단산, 송악산 그리고 산방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2–3–2. 설립 및 해체년도

제주 육군 제1훈련소를 창설하는 1951년부터 해체되는 1956년까지 존재했다.

2–3–3. 개요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1952년 2월 13일부터 신병들을 입소시켰다. 이 시기에는 한국전쟁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으로 신병 기초훈련을 4주 정도 받고 전장에 나갔다.

종합훈련장은 모슬포 지역을 중심으로 부대시설을 갖추어 4주 훈련기간에 맞춰져 있었다. 즉, 이 훈련장은 전장으로 보내기 위해 신병들에게 가장 기초 훈련을 소화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 하지만 이후 훈련기간은 4주를 넘어 6주, 8주, 12주 그리고 16주로 확대되었으며, 신병의 숫자도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종합훈련장을 넘어 숙영지를 설치하여 신병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교육훈련은 제식훈련(사열 포함)을 시작으로 총검술, 장애물통과, M1조준법, 기초사격술 및 야간침투 사격술, 수류탄 투척, 분대전투, 각개전투, 무반동포, 박격포, 자동소총(BAR), 완전군장 행군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 연구에서는 각 훈련들이 종합훈련장 내 어느 장소에서 실행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였다.

① 제식훈련

제식훈련은 신병 훈련의 시작이며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열로 이뤄진다. 군인 정신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내제하며, 전장에 나갈 태세를 갖추는 종합훈련이다. 이 훈련은 신병의 숫자가 적었을 당시 우남연병장에서 진행되었고, 신병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훈련소 지휘소 뒤편이나 단산과 송악산 방향 지역으로 확대하여 신병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우남연병장도 종합훈련장의 한 장소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기초사격술

기초사격술을 교육하기 이전 신병들은 자신의 소총을 조작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야만 했다. 소총 조작 및 관리는 기초 사격술을 연마하기 위한 기본 훈련으로 내무반 혹은 연병장에서 이루어졌다.

훈련소는 신병들의 소총 조작 및 관리 상황을 파악한 이후 실제 소총을 갖고 사격하는 기술을 훈련받았다. 신병들은 기초사격술을 배우기 전에 사격 위험수칙을 숙지하게 되며, 전우 간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긴장의 속도를 올리는 육체 훈련 그리고 조교의 시범 사격들을 경험한 이후 실제 다양한 기초 사격술을 연습하였다.

〈그림 Ⅱ–2〉에서 일주도로변과 모슬봉 사이로 침투 사격장과 1000 사격장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사진 Ⅲ–9〉는 종합훈련장에서 신병들이 기초 사격연습을 위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 사격술이 진행된 위치는 〈그림 Ⅱ–2〉와 〈사진 Ⅲ–9〉을 기준으로 보면 모슬봉 기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진 Ⅲ–9〉 기초 사격술 훈련장(과거)



자료 : 김웅철 소장



자료 : 김웅철 소장

〈사진 Ⅲ–10〉 기초 사격술 훈련장(현재)



자료 :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③ 각개전투

각개전투는 실전 전투 전개 상황에서 적을 격퇴시키며, 공격하는 주요한 군사기술이고, 신병인 경우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고 전장으로 나가야 하는 훈련이다. 앞의 〈사진 Ⅲ–2〉에서 보면 각개전투장의 위치가 표시되어져 있다.

〈사진 Ⅲ–11〉에서 각개전투 실시 장면과 〈사진 Ⅲ–2〉를 비교하면 실시 장면 뒤 배경이 모슬봉 바로 아래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수의 증언에서도 모슬봉 북쪽에 각개전투장이 있었다고 해서 재차 확인이 되었다.

〈사진 Ⅲ–11〉 각개전투 실시 장면



자료 : 김웅철 소장

④ 완전군장 행군

훈련의 막바지를 알리는 신호가 완전군장 행군이다. 한국전쟁 시기에는 전쟁터에서 필수적으로 완전군장 행군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훈련소에서는 전쟁터로 보내야 하는 신병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군장 행군 훈련을 필수적으로 이수시켜야 했다.

이 행군은 종합훈련장에서 산방산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을 향토역사 전문가들이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사진 Ⅲ–12〉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종합훈련장을 떠나 숙영지로 이동할 때 훈련소에서는 신병들에게 완전군장을 해서 이동하는 교육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조사 연구를 통해 향토역사 전문가 이달수의 증언에 따르면 “모슬봉 북쪽에는 각개전투장, 화생방장, 사격연습장(PRI) 등이 1, 2, 3 단계별로 위치하여 있었다. 무반동총 사격장은 산방산 아래쪽에 위치하여 있었는데 단산에서 산방산 쪽으로 사격 연습을 했다. 지금도 산방산 쪽에는 사격으로 부서진 자갈(돌)들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향토역사 전문가 김웅철이 소장한 사진들에서도 종합훈련장 내 훈련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사진 Ⅲ–12〉 완전군장 행군 모습(산방산)



자료 : 김웅철 소장

2–4. 본부 지휘소

2–4–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370번지

2–4–2. 설치년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해군 항공기지 오무라(大村)부대가 건립한 장소로 미군정에서는 국방경비대 제9연대가 사용하였다. 6 · 25전쟁 발발 후 육군 제5훈련소 제1교육대가 이용하다 신병 교육훈련을 위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면서 본부 지휘소로 이용되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해체된 이후 제주경비사령부로 존속되다가 현재 해군 제주방어사령부 91대대가 사용하고 있다.

2-4-3. 개요

본부 지휘소는 현재 단층 건물 1동과 세면장 등이 남아있다. 당시 이 지휘소에서는 훈련소 소장이 근무하면서 훈련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하지만 이 외에도 상세한 업무들이 본부 지휘소에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단언하기가 어렵다. 훈련소 본관 건물 외곽은 원형을 보존하고 있지만 계속 훼손되고 있는 상태이며, 건물 내부는 몇 차례에 걸쳐 정비 및 보완 관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현재 건물 내부에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관련 전시실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은 건군 60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인 2008년 10월 1일에 등록문화재 제409호로 구(舊)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를 지정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본부 지휘소는 "석조 건물(1동 1층)로 규격이 가로 50m, 세로 12.5m, 높이 3.6m, 건축면적 628.1㎡에 달한다. 슬레이트 우진각 지붕 형태이고, 내부로 들어가면 가운데 복도와 좌우로 나뉜 칸막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단층 건물 1동과 세면장 등이 남아 있어서 당시의 교육훈련 환경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 가치를 가진다.".[29]

다음 〈사진 Ⅲ-13〉은 2009년 본부 지휘소를 보수하는 시기에 연구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임을 밝혀둔다.

〈사진 Ⅲ-1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본부 지휘소



본부 지휘소



본부 지휘소 연혁 표지판

29)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참조.



본부 지휘소 복도



본부 지휘소 실내



식수대 보수 공사



식수대 지붕 철거 작업

자료 : 2009년 연구자 촬영

2–5. 화순 항만대

2–5–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79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계리 해변을 황우치라 명명되어 화순 항만대를 황우치 항만대라고도 일컫는다.

2–5–2. 설치년도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하기 이전 1951년 2월까지 LST 접안을 위한 시설을 준비했다.

2–5–3. 개요

화순 항만대는 모든 신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미군이 지원한 LST를 타고 입도했던 부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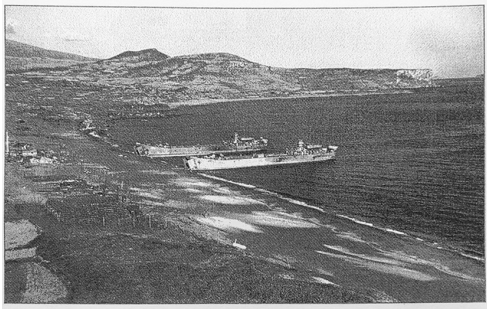
설이다. 또한 이곳은 훈련을 마친 신병들이 다시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출정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LST 1척은 신병 최소 250명을 싣고 입도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매일 2척 이상의 LST가 화순 항만대에 접안했다. 지금까지 조사된 사실에 입각하면 경상도 지역은 진해와 부산, 전라도는 목포, 그리고 충청도는 군산을 통해 제주도에 입도하였다.

〈사진 Ⅲ–14〉 화순 항만대 신병 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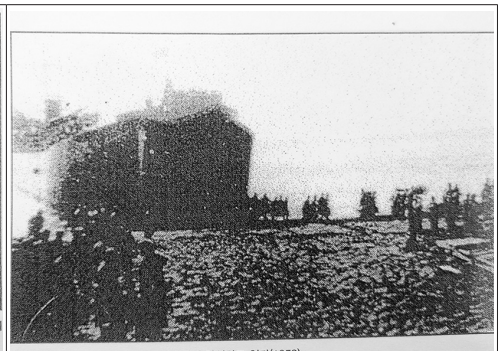
자료 : 김웅철 소장

〈사진 Ⅲ–15〉 화순 항만대 모습



▲ 항만대 – 이곳을 통해 전국의 장정들이 해군 LST를 타고 입대(入隊)하였다. 또 훈련을 마친 군인들은 역시 이 항만대를 거쳐 출정(出征)하였다(1950년대 모슬포 육군 제1훈련소 시절).

자료 : 신용준 소장



LST편으로 수송되어온 장정들이 화순항에 하선하고 있다(1953).

자료 : 신용준 소장

2–6. 장병대기소

2–6–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저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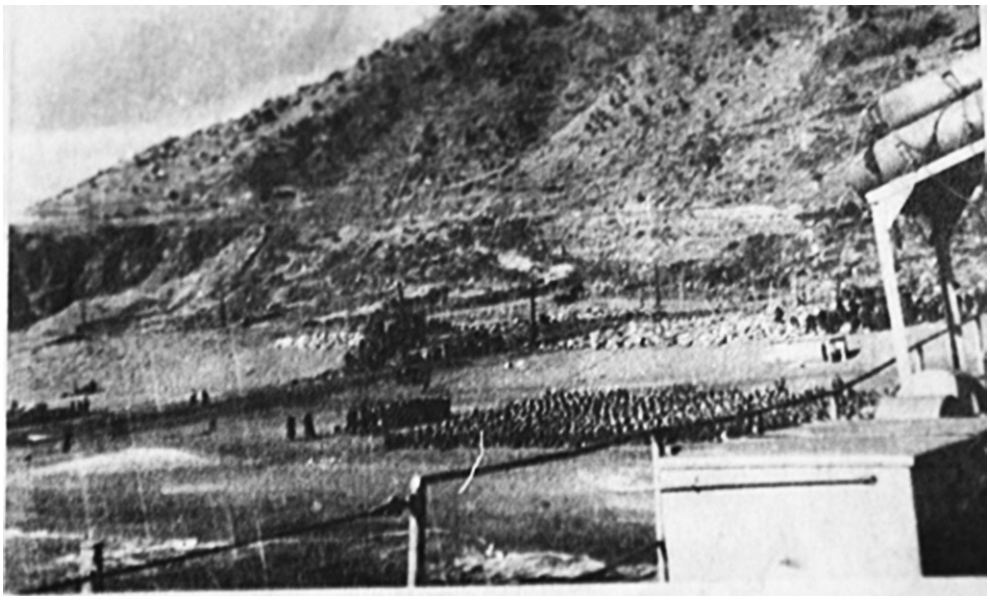
2–6–2. 설치년도

화순 항만대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 이전부터 설치되어 존재했다. 기간사병 신○준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부터 중공군 포로수용소가 철거되기 이전까지 수용대 본부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처음에는 초가집 수용대(사계리)에서 근무했다. 중공군 포로수용소가 철거되면서 이곳으로 수용대가 이전하였다”고 했다.

2–6–3. 개요

화순 항만대에 도착한 신병들은 바로 훈련소로 입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수용대 소속인 장병대기소에서 3~4일 대기하며 간단한 신체검사 등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하였다. 만일 문맹인 신병들의 경우 군사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최대 2주 동안 한글을 배우고 훈련소로 입소하였다.

〈사진 Ⅲ–16〉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장병대기소



출처 : 김웅철 소장

2–7. 수용대

2–7–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서 대정읍 하모리(모슬포)로 이전했다.

2–7–2. 설립년도

수용대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일자보다 먼저 설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용대 설립일자가 1952년 5월 20일로 표기되고 있어 의문의 여지가 있다. 수용대 이전 명칭이 '장병대기소'로 불리다가 변경했거나 아니면 설립일자가 잘못되었는지 혹은 다른 명칭으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조사 과정에서 연구팀은 기간사병 신○준의 증언에 따라 '수용대'의 전신은 '교육대'였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수용대 전신이 교육대로 존재했다면 장병대기소는 교육대에서 수용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2–7–3.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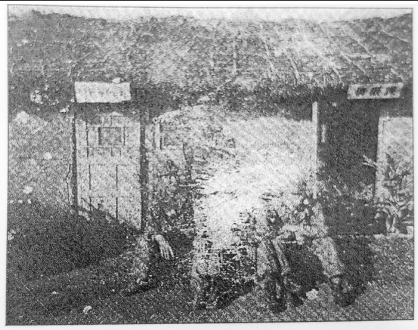
수용대에서 기간사병으로 3년 이상을 근무한 신○준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수용대는 신병들이 LST(군용 수송함)를 타고 화순항에 도착하면 항만대에서 신원을 확인하여 수용대 기간사병에게 인계하면 신병들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부대를 배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나면 기간사병은 신병들을 항만대에서 집합시켜 수용대(사계리)까지 도보로 행군해서 가는데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LST 1척에 1,000명을 수송했는데 하루에 2.5척 정도로 이틀에 5척 정도가 도착했다.[30] 전사가가 많을수록 LST를 많이 보내왔으니 그만큼 전선이 치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에 LST가 몇 척이 오느냐에 따라 한국군 전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수용대장은 대령 혹은 준장이었다. (중략) 수용대 병무과는 우선 신병들을 의무대에서 신체검사를 한 후 부대를 편성하게 되는데 몇 명 정도는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작전과는 부대 편성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리고 인사과는 수용대의 기밀과 행정 및 기관 요원 배속 등을 담당해서 지위가 가장 높았다."

신○준은 수용대 이전에 대해서도 "1952년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배치를 받고 갔는데, 처음에는 초가집 수용대(사계리)에서 근무했다. 중공군 포로수용소가 철거되어 수용대가 이전하면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30) LST 1척에 500명 수송으로 이틀에 5척이면 2,500명 정도 수송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진 Ⅲ–17〉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수용대



수용대 초창기의 본부 건물. 작전과 정보과의 간판이 보인다. 초라한 초가건물이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오른쪽 필자.

자료 : 신용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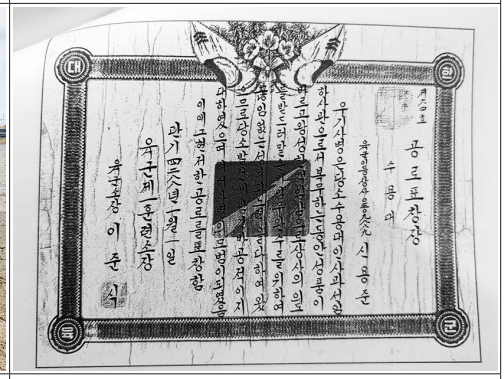


중공군 포로수용소 접수한 수용대본부

자료 : 신용준 소장



자료 :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공 로 표 창 장

수 용 대

우기사병은 당소수용대의사과선발로 신 용 준

하사관으로서 불무한근공안성을이

과기 ㅁㅅ년 1월 일

육군제1훈련소장 이 준 식

자료 : 신용준 소장

2–8. 하사관학교

2–8–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모슬포)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림 Ⅱ–2〉에서 나타나듯이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 뒤편에 있었다.

2–8–2. 설립년도

1951년 6월 20일에 설립되어 1954년 1월 20일에 해체되었다.

2–8–3. 개요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어 신병 교육을 진행했는데 교도연대 교수단의 수가 많지 않았다. 당시에는 교수단을 도와줄 수 있는 기간사병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또한 신병들을 관리 보호하며 강한 신병을 교육시킬 하사관 출신 기간사병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훈련소 내부에 하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교육하게 되었다. 또한 하사관학교의 설치는 전쟁이 종결되었을 시에도 대한민국 국군의 발전을 위해 하사관 수의 증강이 이루어졌다.

하사관학교 입교는 모든 신병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신병으로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는 도중에 입교 기회가 있었는데 신병들 중에서 차출하여 시험을 보고 합격자에 한하여 하사관학교 입교를 허가했다. 하사관학교의 선발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 문맹인들이 많아서 출생지, 주소, 성명 및 간단한 상식 등의 내용으로 시험을 치렀다. 우선은 한글에 대해 문맹이 아닌 자 그리고 한자 습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자 그리고 하사관학교에서 훈련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겸비한 신병들로 입교를 허락하였다.

하사관학교는 신병 훈련과 유사하게 16주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신병 훈련보다는 강도가 높게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보급품과 식사 등은 신병보다 나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기초훈련과 숙영지 훈련 그리고 마지막 훈련은 완전군장으로 모슬포에서 한림까지 행군하였다.

〈사진 Ⅲ–18〉 제주 육군 제1훈련소 하사관학교



출처 : 김웅철 소장

2–9. 신병 숙영지

신병 교육 숙영지는 모슬포 지역을 벗어나 제1숙영지, 제2숙영지, 제3숙영지, 제5숙영지 등 4곳에 설치하였다. 특히 각 숙영지를 설치할 때 고려 사항은 식수와 광활한 뜰이 존재하는 장소를 선택했다.

2–9–1. 제1숙영지

①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원물오름 일대

② 설립년도

신병 제1숙영지는 1952년 2월 13일에 제2, 제3숙영지와 함께 설치되어 1954년 5월 5일에 해체되었는데 다른 3곳의 숙영지보다 가장 빠른 시기에 해체되었다. 하지만 제1숙영지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또다시 1954년 11월 15일에 재창설되었지만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폐쇄되면서 철거되었다.

③ 개요

신병 제1숙영지는 1952년 2월 13일에 제2 및 제3숙영지와 동시에 설치되었지만 여러 숙영지 중 규모면에서 가장 컸다. 이곳은 신병을 위한 야전훈련 및 사격술을 연마하기 위해 설치한 숙영지로 기능면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안덕면 동광리 원물오름 지역은 일제강점기 말 일본군의 결7호 작전에 따라 제58군 사령부 제111사단 본부가 주둔했던 군사적 요충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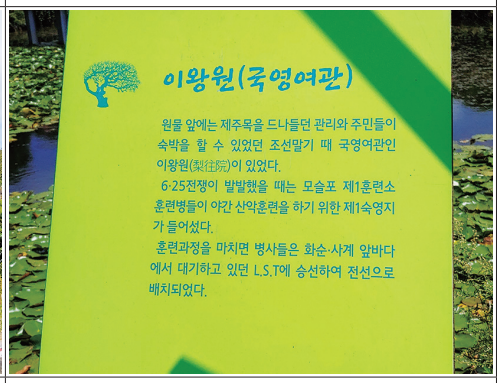
"육군 제1훈련소 신병 제1숙영지 본부는 동광리 원수악 바로 동쪽 원물이 솟아나는 남쪽 밭에 있었다. 병사는 서광리민을 동원하여 돌담 길이가 40m 되게 장방형의 석축을 두르고 그 위에 서까래를 걸친 후 띠로 지붕을 덮었다. 이런 가건물을 10여동이나 즐비하게 지었다. 원물 바로 남쪽에는 취사장을 지었고, 지금도 그 건물 잔해인 석축이 일부가 남아있다."[31]

이 지역은 안덕면 동광리와 서광리에 인접해 있으며, 하사관학교 제1, 제2숙영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전에 마전리(麻田里)라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나아가 한림읍 금악리의 정수악(汀水岳) 그리고 애월읍 어음리 새별오름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엄청난 범위에 이르고 있다. 이 넓이는 지역 규모면으로 볼 때 대정읍을 중심으로 하는 육군 제1훈련소의 면적을 넘어서고 있다.

31) 서귀포문화원(2010), 앞의 책, 96쪽.

특히 신병 제1숙영지는 “매일 신병 2개 중대가 들어오고 나갔으며, 신병들에게 주요한 사격 훈련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신병 제1숙영지는 훈련병들에게 2회에 걸쳐 M1 소총사격과 BAR(자동소총) 야외사격 훈련을 시켰다고 한다.” [32]

〈사진 Ⅲ–19〉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제1숙영지

<table>
<tr>
<td>  </td>
<td> 
육군 제1훈련소 신병 제1숙영지 엣터</td>
</tr>
<tr>
<td>자료 : 정수현 소장(高德閏 自敍傳)</td>
<td>자료: 서귀포문화원(2010) 제공</td>
</tr>
<tr>
<td>  </td>
<td> 
</td>
</tr>
<tr>
<td>자료 :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td>
<td>자료 :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td>
</tr>
</table>

32) 정수현 소장(高德閏 自敍傳)

2–9–2. 제2숙영지

①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일대

② 설립년도

제2숙영지는 1952년 2월 13일에 제1, 제3숙영지와 함께 설치되어 1954년 9월 9일에 해체되었다. 또다시 제1숙영지와 함께 1954년 11월 15일에 재설치되었는데 1956년 1월 1일 제주육군 제1훈련소가 폐쇄되면서 철거되었다.

③ 개요

제2숙영지는 1952년 2월 13일에 제1 및 제3숙영지와 동시에 설치되어 규모면에서 제1숙영지보다 적은 면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예동 일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특히 대왕수의 대용량 물을 활용하였다. "신병 제2숙영지는 상예동 대왕수 위쪽과 골짜기 넘어에 막사를 지었다."[33]

"중문면민을 동원하여 돌로 석축을 장방형으로 쌓고 소나무 기둥과 서까래를 걸친 후 강정리 주민들의 각 가정에 보관하였던 볏집을 운반해서 와서 덮었다. 대왕수 바로 밑에는 취사반을 지었다. 이러한 가건물을 20여동 지은 후 신병들이 모슬포에서 걸어와 5일 정도 체류하였다."[34] 그리고 신병의 수가 증가하면서 훈련 차 숙영지에 들어온 신병들도 돌을 날라 막사를 보충 설치했다는 증언을 지난번 그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지난 함양군 조사에서 노○상에 따르면 "제2숙영지에는 폭포가 있어 물이 좋고 논도 있었다. 한번 가게 되면 그곳에서 2주 동안 교육을 받았다."[35] 제2숙영지에서의 훈련기간은 훈련소의 상황에 따라 1주 혹은 2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제1숙영지는 사격 훈련장으로 이용되었으며, 제2숙영지는 전술훈련 중 각개전투와 특수 사격 등 주요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훈련장이었다. 이곳에서는 색달동 우보악(牛步岳)을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다. 2017년 양○영의 증언에 따르면, "제2숙영지는 대왕암 근처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교관이 대전차포, 박격포, 무반동총을 교육시켰다. 숙영지에서는 2년 동안 근무했으며, 땅위에 판자를 깔아놓고 취침하기도 했다."[36] "훈련소 제2숙영지 초대 지구대장은 중령 조영구, 장교가 30여 명, 사병이 100여 명 등 기관 요원이 130여 명이 근무하였다."[37]

33) 서귀포문화원(2010), 앞의 책, 97쪽.
34) 서귀포문화원(2010), 앞의 책, 97~98쪽.
35) 고광명 · 황석규 · 송 훈(2017), 앞의 책, 118쪽
36) 고광명 · 황석규 · 송 훈(2017), 앞의 책, 107쪽.
37) 서귀포문화원(2010), 앞의 책, 98쪽.

〈사진 Ⅲ–20〉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제2숙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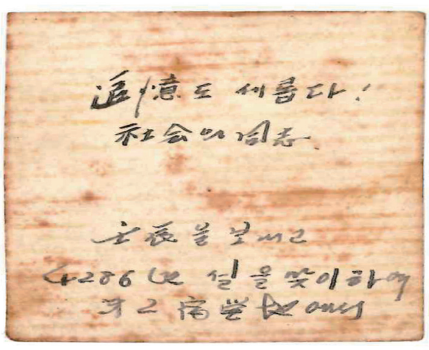
자료 : 서귀포문화원(2010) 제공



자료 :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자료 : 2017년 6월 김광수 제공



자료 : 2017년 6월 김광수 제공

2–9–3. 제3숙영지

①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1071번지 일대

② 설립년도

제3숙영지는 1952년 2월 13일에 제1, 제2숙영지와 함께 설치되어 1953년 9월 21일에 해체되었다. 제3숙영지는 육군 제1훈련소 소속 4개의 신병 숙영지 중에서 가장 먼저 해체되었다.

③ 개요

제3숙영지는 1952년 2월에 하원동 대한불교 조계종 법화사(法華寺) 경내를 중심으로 설치하게 된다. 법화사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강정천 그리고 서쪽에는 예래천이 흐른다. 또한 법

화사 뒷편과 동편에 두 개의 용천수가 있다. 그리고 법화사의 넓은 뜰과 그 뒤편으로 능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숙영지를 설치하는데 적절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 “강정 · 하원 주민들을 동원하여 돌로 석축을 장방형으로 쌓고 소나무로 기둥과 서까래를 걸친 후 강정리 주민들이 가구마다 보관했던 볏집을 갖다가 덮었다.”[38]

서귀포문화원(2010) 자료에는 제3숙영지에서 각개전투와 사격연습을 하였다고 서술되고 있지만 연구팀의 견해로는 신병들에게 전술훈련 중 소대공방과 사격 훈련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된다. “신병 제3숙영지에서 교육훈련이 끝나면 동부지역에 위치한 신병 제5숙영지로 갈 때 도보로 이동했다. 신병 제3숙영지 초대 지구대장은 중령 오태경이었다.”[39]

〈사진 Ⅲ–21〉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제3숙영지



자료 : 서귀포문화원(2010) 제공



자료 :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2–9–4. 제5숙영지

①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일대

② 설립년도

제5숙영지는 4곳의 숙영지 중 마지막에 설치되었는데 1952년 3월 15일에 설치되어 1954년 4월 18일에 해체되었다.

38) 서귀포문화원(2010), 앞의 책, 98쪽.
39) 서귀포문화원(2010), 앞의 책, 98쪽.

③ 개요

제5숙영지는 제1숙영지와 함께 규모가 컸으며, 법호촌을 중심으로 상효와 하효 일대 지역으로 끌(칡)오름을 포함하고 있다. "상효동을 종단하여 하천이 흐르는데 그 하천으로 돈내코에서는 청정한 생수가 흘러 내렸고 이 물을 도수로로 연결하여 상효 저수지로 끌어들였다. 바로 그 도수로에 인접하여 인근 주민을 동원하여 10여동의 막사를 지었다".[40]

이 지역은 4 · 3 무장대가 속출하던 장소로서 다른 숙영지와 달리 소총을 지니고 다녀야 했으며, 경계 근무도 서야만 했다. 2017년 조사에서 노○상의 증언에 의하면, "제5숙영지는 주변에 공비가 있어서 교육을 받거나 행군할 때 완전무장을 했다.[41] 제5숙영지는 신병들에게 전술훈련 중 야간훈련에 중점을 두었고 사격 훈련도 했다."고 했다.

〈사진 Ⅲ–2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제5숙영지



자료 : 서귀포문화원(2010) 제공



자료 :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2–10. 하사관교육연대 숙영지

하사관교육연대 숙영지는 안덕면 동 · 서광리를 중심으로 2곳에 설치하여 신병(하사관 후보생)들을 모집해서 기간사병으로 활용하기 위해 훈련을 시켰던 곳이다.

2–10–1. 제1숙영지

①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안덕면 서광리 원물오름 일대

40) 서귀포문화원(2010), 앞의 책, 99쪽.
41) 고광명 · 황석규 · 송 훈(2017), 앞의 책, 118쪽.

② 설립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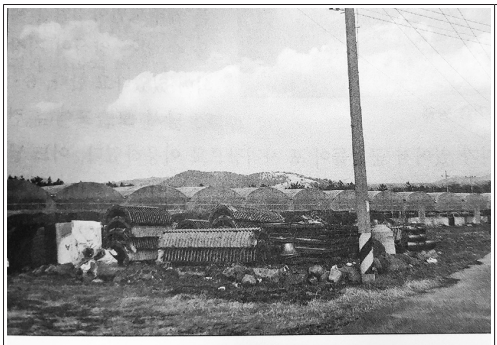
하사관교육연대 제1숙영지는 제2숙영지와 함께 1952년 10월 4일에 설치되어 1953년 12월 24일에 해체되었다.

③ 개요

하사관교육연대 제1숙영지는 신병 제1숙영지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원래 하사관교육연대는 신병들이 훈련 도중 혹은 과정을 수료한 후에 선발된 하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16주 동안 교육시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이곳에서는 신병의 훈련소 교육과정 보다 좀 더 심화된 사격 및 군사 훈련을 교육시켰다.

2017년 조사에서 최○언에 따르면 "하사관교육연대는 1~4과까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졸업하면 하사가 되었으며, 약 250~350명 정도가 입소하였다"고 증언했다.[42] 그리고 조○완의 증언에서 보다 상세하게 하사관교육연대의 실제 생활을 알아볼 수 있다. 신병들은 "8~9주 동안 훈련을 받고나서 여름경 하사관교육연대(260기)에 들어가기 1주일 전에 총도 쏘아보지 못하고 휴전(7월 27일)되었다. 이곳에서는 8주 동안 기초교육(제식훈련 등)을 받았다. 그 당시 분대장을 했는데 '훈련 중에 땀을 많이 흘리면 피를 많이 안 흘린다.'고 했다. 하사관교육연대 졸업 전에는 철모를 쓰고 배낭을 메고 완전군장을 해서 기별로 제주도 일주 행군훈련을 하였다. 살기 위해 하사관교육연대에 들어갔으며, 훈련을 받을 때 죽은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43]

〈사진 Ⅲ-23〉 하사관교육연대 제1숙영지



옛 하사관학교 터

자료 : 서귀포문화원(2010) 제공



자료 :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42) 고광명 · 황석규 · 송 훈(2017), 앞의 책, 97쪽.
43) 고광명 · 황석규 · 송 훈(2017), 앞의 책, 103쪽.

"이곳은 서광동리 주민들이 동원되어 넓이 6m, 높이 2m 정도의 담장을 쌓고 흙을 발라 부근 소나무로 벌채 지붕을 덮어서 만들었다. 교사의 길이는 80m 정도였고, 내부에는 자갈로 밑을 다지고 위에 억새를 베어다 깔았다. 병사들은 이 위에서 모포를 덮어 자면서 훈련을 받아야 했다. (중략) 당시 교장은 전라북도 군산 출신인 대위 김기석(金基石)이었다."고 했다.[44]

2-10-2. 제2숙영지

①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안덕면 동광리~금악리(이시돌 목장) 일대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정확한 위치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관련된 사진도 찾을 수 없었다.

② 설립년도

하사관교육연대 제2숙영지는 제1숙영지와 함께 1952년 10월 4일에 설치되어 1953년 12월 24일에 해체되었다.

③ 개요

2017년 조사에서 조○완의 증언에 따르면 하사관교육연대의 훈련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 "운전교육대에 가려고 희망을 했는데 이틀 앞두고 하사관교육연대에 입교했다. 이곳에서 훈련을 받을 때 총기소지 검사 등으로 애를 먹었으며 엄격했다. 밥을 받아 놓고 감사의 묵념을 하고 나서 1분도 채 안되어 전부 집합을 시킨 적이 있다. 총기 등 병기 검사에서 2번 불합격하면서 보충대에서 나와 3일 동안 대기했다. 일주 행군은 공격과 방어전술, 수류탄 투척 등 신병 전원이 실습 훈련을 받았으며, 밥을 지으면 배식하고 나서 나누어 먹었다. 지휘관들은 분대장들에게 훈련을 잘 못 시키면 귀한 집 자식들이 다 죽는다고 했다. 처음에 갔을 때 구대장(고준식)이 5시간 동안 쪼그려 뛰기를 시켜서 고생한 기억이 있다."[45]

《제주신보》의 기사에서 보면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자랑으로 하사관학교를 지적하고 있다.[46] "하사관학교는 가장 정수로 꼽히고 있다. 취사장은 스팀 엔진을 이용하여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누른 밥을 지어내지 않아 식사 분량이 많고 극히 위생적이다. 욕탕은 민간욕탕보다도 얌전하게 꾸며져 있으며 한꺼번에 1개 중대씩 입장시킬 수 있다. 하사관학교의 이발부는 외관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충실하다."

44) 서귀포문화원(2010), 앞의 책, 200쪽.
45) 고광명 · 황석규 · 송 훈(2017), 앞의 책, 103쪽.
46) 《제주신보》 1952년 6월 5일자.

2–11. 육군 제98병원

①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363번지(현재 대정여자고등학교 부지)에 소재하고 있다. 일부 1개동의 시설물만 존재할 뿐 대부분 시설물은 1980년대에 멸실된 상태이다.

② 설립년도

육군 제98병원은 1952년 6월 9일에 설치되어[47] 1956년에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해체되면서 1957년에 군산 혹은 전주로 이설하게 되었다.[48] 육군 제98병원이 1957년 언제 그리고 어디로 이설되었는지에 대해 현재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일부 존재하는 육군 제98병원 시설물은 2017년 4월 20일에 국가 등록문화재(제680호)로 지정되었다.

③ 개요

야전병원인 육군 제98병원은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신병 훈련 중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 및 처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1951년 3월에 창설된 후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육군 제98병원이 개소하게 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하면, "국군 병원의 설립은 1948년 5월 1일에 통위부 직할로 서울 영등포에 육군 제1병원이 창설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육군 제1병원 창설 이후 같은 해 10월 15일 충남 대전에 육군 제2병원, 11월 20일 전남 광주에 육군 제3병원이 개원하였으며, 이듬해 1949년 2월 2일 부산에 육군 제5병원과 7월 1일 영등포 대방동에 육군 수도병원이 창설되었다. 6 · 25전쟁 기간 중에는 점차 증가하는 환자들로 인해 기존 6개 병원에 더하여 육군 제7 · 15 · 18 · 23 · 27 · 31 · 36 · 59 · 63 · 77 · 98병원 등 11개 병원이 새롭게 창설되었다. 당시 1개 육군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은 2,000~4,000명 수준이었다."

육군 제98병원은 당시 제주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24개 석조 건물 병동이 건립되어 큰 규모를 자랑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대령급 원장에 군의관은 최대 10여명, 민간인 간호사 7명, 의무요원 40~50명 등이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매일 같이 후송돼 오는 부상병을 치료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특히 육군 제98병원은 육지부의 다른 군 병원을 거쳐 부상이 심한 병사들이 후송되어 오기 때문에 사망자가 많았다. 많을 때는 하루 15구의 시신을 병원 옆 '노른곶 화장터'에서 화장했다고 한다."[49]

향토역사 전문가 김○철의 증언에 따르면, "육군 제98병원에는 제주도 출신 군의관 김문숙, 정태무, 타 지역 출신 이은복과 같은 의사들이 근무했다. 이질 등 전염병에 걸리면 격리

47) 2017년 조사 당시 설치 년도는 1952년 6월로 파악되었지만, 이달수 향토역사 전문가의 면담조사를 통해 1952년 6월 9일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6 · 25전쟁 여군 참전사』, 3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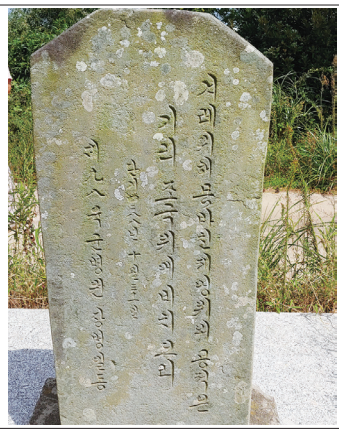
48) 2017년 조사 당시 군산으로 이설되었다는 증언을 들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전주로 이설하였다고 서술된 기록을 확인하였다.

49) 《연합뉴스》 2016년 6월 24일자

되어 수용되었으며, 대정중학교 동쪽 200m 둔덕에 전염병 환자를 수용하는 임시 천막 병동이 있었다. 철근 콘크리트로 된 정문 기둥은 파기되어 대정여자고등학교 동남쪽 300m 정도 현재 한라빌라 뒤쪽 밭에 방치되어 있다. 병동 뒤에 있는 연못인 장관목은 육군 제98병원에서 나오는 병원 세탁물이 1차 세탁되었던 곳이다. 병원 세탁물은 동일리 속칭 홍물에서 세탁한 뒤 모슬포 신영물에서 다시 세탁했다."

이어서 김○철에 의하면 "1964년 3월 이곳에 대정여자고등학교가 개교하면서 병동 건물들은 차례차례로 철거되었는데 1980년대 초반에는 대부분이 철거되어 1동만 남아 현재 가사실습실로 이용되고 있다. 남아 있는 1동의 건물도 원형 그대로는 아니다. 운동장 쪽에서 보이는 출입구가 있는 벽면은 기계로 매끈하게 깎아낸 판석(板石)으로 단장되었고, 남쪽 벽면은 벽돌로 바뀌었고, 창문도 현대식 알미늄 샷시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육군 제98병원은 군인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피난민도 치료해 주었던 제주도의 최고 의료기관으로 존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진 Ⅲ-24〉 육군 제98병원

<table>
<tr><td>  </td><td>  </td></tr>
<tr><td>육군 제98병원 정문 기둥</td><td>육군 제98병원 건물</td></tr>
<tr><td>  </td><td> 
</td></tr>
<tr><td>육군 제98병원 송덕비</td><td>육군 제98병원 송덕비</td></tr>
</table>



육군 제98병원 정문 잔해



육군 제98병원 정문 잔해

자료 : 김웅철 소장,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2–12. 헌병대(법무부)

2–12–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소재로 제9연대와 근접한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현재 정확한 위치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2–12–2. 설립년도

헌병대는 1951년 11월 13일에 군악(예)대와 함께 설치되었다. 해체 시기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폐쇄 시기와 일치한다고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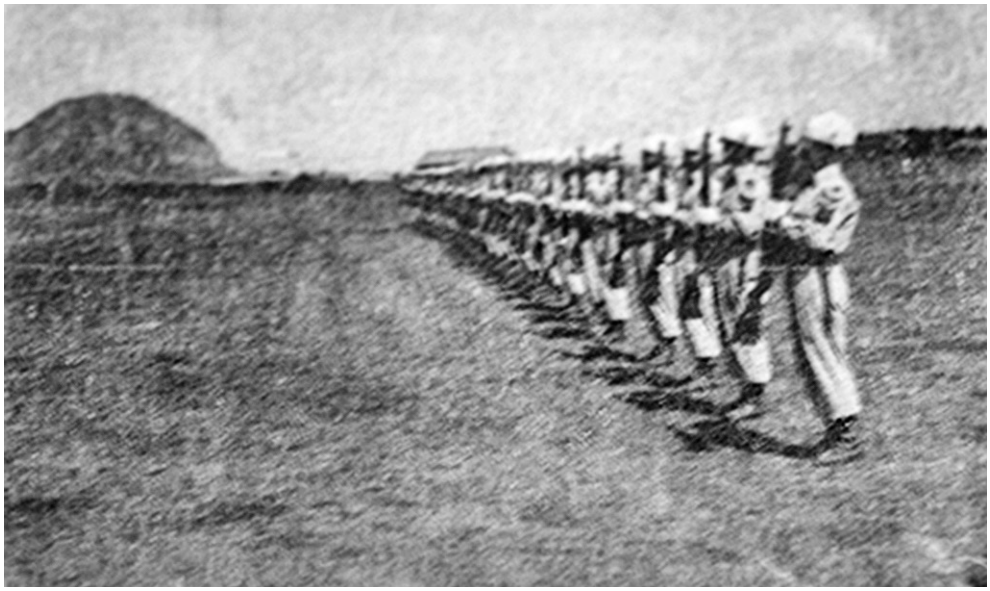
2–12–3. 개요

헌병대는 치안 · 경호 · 경비의 역할을 담당했다. 육군 제1훈련소 소장 등 장교들을 경호하거나 육군 제1훈련소 정문과 각 연대 및 부대시설의 경비를 담당하였다. 1953년 2월 7일에 육군 제1훈련소 경비대가 설치되면서 헌병대의 경비 업무를 이전하게 된다.

하지만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제주도지구위수사령부를 겸하고 있어서 제주도 치안에 주요한 역할을 이행해야 했다. 이 때문에 헌병대는 역할 측면에서 축소라기보다는 제주도 전 지역의 치안에 주안점을 두는 역할을 담당해야만 했다.

〈사진 Ⅲ–25〉에서 보면 헌병대 사열 뒤편으로 막사가 보이는데, 이 막사가 헌병대 건물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진 Ⅲ–25〉 제주 육군 제1훈련소 헌병대 사열 모습



출처 : 김웅철 소장

2–13. 공병대

2–13–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로 이전하여 제5연대와 근접한 지역에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지만 현재 정확한 위치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2–13–2. 설립년도

공병대는 1951년 6월 11일에 창설되었지만 실제는 백인엽 초대 소장과 함께 1951년 1월부터 보성초등학교에 설치되었다. 해체 시기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폐쇄 시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13–3. 개요

공병대는 전투 공병대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시설 공병대의 역할을 담당했다. 백인엽 초대 소장을 필두로 연병장, 연대막사, 숙영지, 훈련장 등을 설치하는 등 토목, 건설 그리고 부대 시설의 보수 작업 등을 수행했다.

2–14. 정훈부

2–14–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제주 육군 제1훈련소 본부)

2–14–2. 설립년도

정훈부는 훈련소 창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해체 시기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폐쇄 시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14–3. 개요

정훈부는 신병들의 문맹 퇴치를 시작으로 정신교육, 더 나아가 장교들의 학식 향상에도 노력했다. 특히 정훈부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소식을 언론에 홍보하고, 중요한 훈련소의 군사 기밀까지 취급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

다음은 《제주신보》에 게재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훈 부장(소령 안중식)의 인터뷰 내용이다. “단기 4283년 6월 25일 국제 공산당의 발악과 적구들의 불법 남침으로 민족적인 일대 참상을 빚어내어 세기적인 동란이 폭발되자 국가와 민족 존망이 중대한 위기를 당함에 국군 증강의 민족적 요구에 응하여 당 훈련소는 동년 7월 14일에 육군 제1훈련소로 개편 창설되어 4284년 2월 6일에 제주도로 이동, 국군 역대소장들의 열성적인 노력의 결정으로 금일의 낙원 육군 제1훈련소를 건설하고 동양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대규모적이며 과학적인 훈련장을 가지고 있는바 오늘에 있어서의 훈련소의 목표는 훈련병의 급양 보건의 향상과 실전적인 교육훈련으로 세계적인 강병을 육성하라는 오(吳)소장 각하의 철두철미한 통솔방침 하에 전 기간장병은 노력하여 일취월보의 발전도상에 있는 바입니다.

훈련소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면 수용대를 걸쳐 각 연대로 입대되는 신병들은 14주 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이백수십개소의 교육 훈련장에서 전문적으로 분담된 교관과 조교에 의하여 군사 훈련을 받으며 각급 지휘관들은 우리 민족의 지보(支保)인 신병들을 군대의 모든 일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엄부자모(嚴父慈母)로서 주야 육성하고 있습니다.”[50]

그리고 《제주신보》의 기사에서 정훈 부장(소령 안중식)은 정훈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수용대를 비롯하여 각대에서 정훈교육을 실시하여 문맹자 퇴치와 정신교육, 사상교육(시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간 ‘강병’1200부, 주간‘통일’ 3000부를 발간하여 일일의 국내외 정세 및 근황 소대 소식을 알려주며, 지상을 통하여 정훈교육, 군사교육을 실

50) 《제주신보》 1952년 12월 20일자

시하고 있다. 또한 장교들의 학식 향상을 위하여 지난 4월 9일부터 장도식 선생을 학장으로 모시고 한국대학 야간강좌를 개강하여 교수 8명으로 철학, 정치, 법률, 경제사회, 어학 등 매일 3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는바 현재 60여 명의 청강 장교를 가지고 있다."[51]

2–15. 병참대

2–15–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소재하고 있다. 수용대와 근접하고 있고, 현재 알뜨르비행장 도로변에 있다. 기간사병 이○돈의 증언을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군인 도로변 어느 쪽에 있는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2–15–2. 설립년도

현재 병참대가 언제 설립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병참대는 신병들이 훈련소에 입대하면 음식, 피복, 침낭들을 모두 해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훈련소 창설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된다. 해체 시기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폐쇄 시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15–3. 개요

병참대의 기간사병을 지낸 이○돈의 증언에 따르면, "병참대 대장의 계급은 대령으로 4개 중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1중대는 음식, 2중대는 피복, 3중대는 침대와 침낭 그리고 4중대는 천막, 드럼통 등을 이동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제주신보》 기사에서 보면 병참대가 "신병들에게 훈련소 입소와 함께 작업복 상하 2벌, 내의 상하 2벌, 작업모, 양말, 훈련화(2족) 등이 배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52]

특히 이○돈의 증언에 의하면 병참대는 신병들의 피복뿐만 아니라 "음식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급양 생산대를 병참대에 소속시켜 운영되었다. 본인은 마지막 전역 전 5개월을 급양 생산대에서 근무했으며, 전역은 병참대 소속으로 제대하였다"고 했다.

51) 《제주신보》 1952년 12월 22일자
52) 《제주신보》 1952년 6월 5일자

2–16. 급양 생산대

2–16–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091–1번지에 소재하였다. 기간사병 이○돈의 증언에 의해 골(칡)오름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16–2. 설립년도

급양 생산대는 1952년 10월 17일에 설치되었다. 병참대 소속 기간사병 이○돈의 증언에 의하면 해체 시기는 1954년 9월경으로 판단된다.

2–16–3. 개요

병참대의 기간사병을 지낸 이0돈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에서 5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1개 중대 4개 소대가 주둔하여 병사 120명 정도가 근무하였다.” 특히《제주신보》기사에서 보면 급양 생산대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자세히 서술되고 있다.[53]

우선 게재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육군 제1훈련소가 본도로 이주 후 오늘날까지 소요 부식물의 과반량을 도내 생산물에 의존하고 있으나 얼마 전 훈련소에는 급식 생산대가 발족하여 부식물의 자가 생산을 계획 추진 중이며 수확이 결실되는 명춘부터는 소요 부식물의 거의 전량을 자급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급식 보건에 힘써 강병을 육성하자는 오(吳) 소장의 통솔 방침을 받들어 지난 10월 편성된 급식 생산대는 도내에서도 가장 기후가 온화한 남군 서귀포 부근 제○숙영지구대에 본대를 두고 동대 농산부에서는 한라산 중산간 지대 넓은 황무지 개간에 착수 ‘부르도자’를 사용하여 현재까지 3만 6천 평을 개간하여 양파, 파, 시금치를 파종하였으며, 축산부에서는 현재 대규모의 축사를 신축중인바 현재 도야지 144마리, 오리 104마리, 닭 157마리를 기르는 중인데 12월 중순부터는 소량씩이나마 배급을 시작하게 되리라 한다. 이 생산 대원은 훈련소 기간장병에서 과거 농축산업, 어업에 종사하던 기술자들이 망라되고 있는바 훈련소에서는 현 물가고에 비추어 부식비(1일 1인당) 기간사병 790원, 신병 1,000원으로는 소요 급식량 5천 칼로리를 섭취할 부식물을 구입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한 바 이에 대한 활로책으로 동대가 조직된 것이다. 동대 1차 계획을 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농산부는 연내에 중산간 지대 황무지 15만 평 개간을 완료 과학적 농지 방법을 택하여 ‘토랙타’를 사용할 것이며(CAC를 통하여 도입키로 예약) 생산 계획량은 훈련소 수요량의 과반을 차지한다. 축산부는 돈 5,000마리, 닭 만마리, 오리 만마리, 토끼 만마리, 산양 2백마리, 양 50마리를 기르기를 계획인바 그 중 돈 3,000마리, 닭 5천마리는 주한 미군에 의뢰하여

53)《제주신보》1952년 11월~1953년 6월 28일

미국산 우량종을 도입하기로 되었다. 어로부는 CAC에 저인망 어선 4척을 신청 중이다. 이리하여 도민 협조 밑에 확보되어 오던 훈련소 부식조달이 자급자족 단계로 옮겨지면 첫째, 도민 경제가 안정될 것이며 둘째, 중산간 유휴지 개발과 아울러 축산어업 진흥의 일단계가 계획하여지고, 셋째, 공비소탕 지역이 축소될 것으로 급식 생산대의 발전이 자못 기대되고 있다."

이어진 《제주신보》 기사에는 정훈 부장(소령 안중식)이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고 있다. "특히 오 소장 각하께서는 훈련병의 급양과 보건에 종시일관 그 향상을 위하여 주도 세밀한 시찰을 하시고 연구하여 정량의 주 · 부식은 물론 국가 예산으로서 부족 되는 현 사정을 고찰하시어 한라산록의 황무지를 개척하여 자급자족 병농일치론을 제고하시어 지난 8월부터 발족된 급양 생산대를 10월 17일 드디어 창설하여 30만 평을 계획하고 현재 13만 평을 경작하여 보리 60여석, 야채 6만여천관의 생산을 추산하고 있으며, 2백만 개소의 호밤 구맹이를 현재 파고 있으며, 관계처의 협조로 일만 수천마리의 양축을 계획하여 현재 4백여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국군 기준 영양 3700칼로리의 급양을 국가 영달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족키 불가능한 일로서 종전 300그램의 야채를 6백그램으로 증급하고 있으며 장차 5천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바이다."

이러한 오덕준과 권준 훈련소장에 대한 급식 생산대의 업적은 오, 권 양장군 기념비로 남게 되었다. 《제주신보》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병대 급식 생산대에 오덕준, 권준 양장군의 기념비를 건립한다고 한다. 급양 향상의 자활대책으로 창설된 급양 생산대는 35만 평의 경작부와 사육부, 어로부로서 군사 제1의 대규모적 생산대로서 급양 생산에 중익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병농일치로서 전력 보양에 크게 기여되는바 이 생산대의 창설에 착안한 오(吳))장군의 공헌을 영원히 빛내기 위하여 김종평 부소장의 인준으로 건립될 이 기념비는 금월 내로 제막식을 거행하리라 한다." 그리고 《제주신보》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병대 급양 생산대에 건립된 오덕준, 권준 양장군 기념비 제막식은 26일 하오 1시 30분경 강병농원에서 부대장 이 중장을 비롯하여 권, 김 양장군, 각 참모 참석리에 거행되었다."

2–17. 보육대(保育隊)

2–17–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2–17–2. 설립년도

보육대는 1953년 9월 22일에 설치되었는데 해체 시기는 알 수 없다.

2–17–3. 개요

6 · 25 당시 신병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상황은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부터 기아에 허덕였으며, 훈련 중에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 실조에 빠진 신병들이 속출했다. 육군 제1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본토 전쟁터로 올려 보내면 보충대에서 제주 훈련병들에게 '명태가 온다.'라고 할 정도였다. 특히 1953년 2월부터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굶주린 병사는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보육대에는 장기와 바둑 그리고 독서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진 Ⅲ–26〉에서 보육 극장의 간판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보육대는 정작 훈련병들이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 제공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육대에 들어가면 다음은 육군 제98병원으로 가는 과정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훈련소에서 이질과 전염병이 돌았고, 영양실조로 인해 보육대로 보내지고 급기야는 많은 신병들이 육군 제98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사진 Ⅲ–26〉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보육 극장



출처 : 김웅철 소장

2–18. 교도연대(교수단)

2–18–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소재했는데 〈그림 Ⅱ–2〉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2–18–2. 설립년도

교도연대는 1951년 3월 27일에 설치되어, 1954년 11월 18일 교수부와 합병하며 교수단으로 개명하여 창설하게 된다. 해체 시기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폐쇄 시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2–18–3.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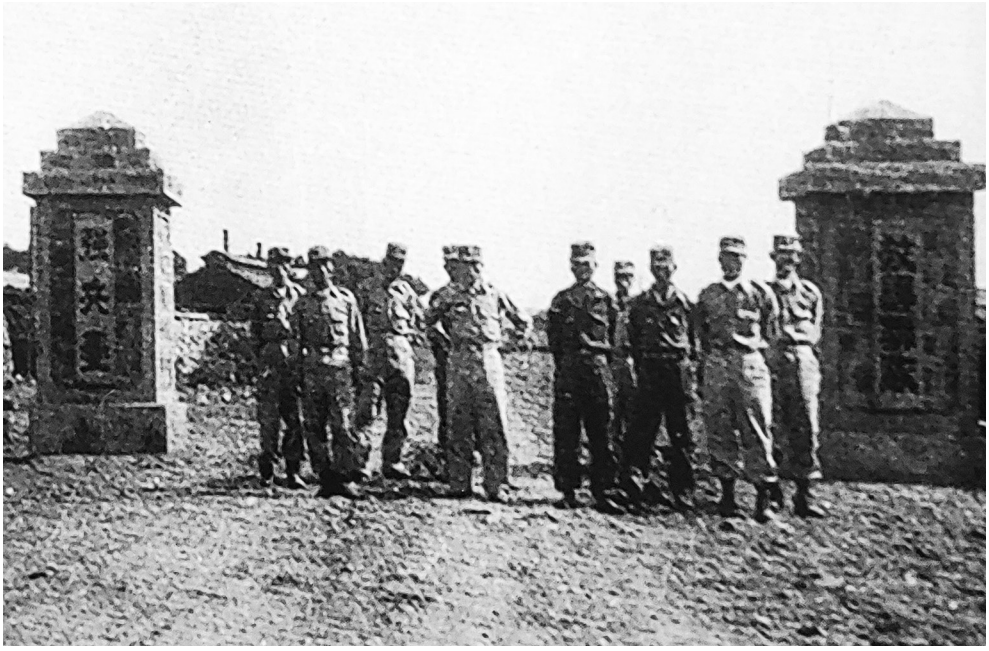
교도연대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입소한 신병들을 강건한 군인(병사)으로 길러 한국전쟁에 투입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부대였다. 《제주신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훈련소를 소개하고 있다. "190여개의 훈련장, 훈련소의 영내 면적이 7만여 평이고 을지, 단군, 김유신 훈련장이 대표적인 것으로 규모와 시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훈련 인원은 00000명이며,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의 수는 000명이고, 조교의 수도 0000명이다. 교육훈련은 일선주의와 중점주의 방식이다. 교육 방법은 강의식이 아닌 시범과 실습을 주로 하며, 야간교육을 중요시하여 실천하고 있다."[54]

다시 말해 교도연대의 교관 수는 몇 백 명이고, 교관의 훈련 지도를 도와주는 조교의 수는 몇 천 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이를 유추하면 교도연대의 구성원 수는 수 천 명으로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훈련 방식은 전쟁터에 보낼 신병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일선주의와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야간교육에 집중한 것으로 파악된다.

백인엽의 인터뷰에는 교도연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전장에서 필승 요건은 크게 3가지'이며 '올바른 정신' 즉 애국심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강건한 체력'이며, '고도의 무기 조작력과 전투기술 능력'을 갖춰야 전장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도연대의 필승 요건에 따라 신병들을 훈련시켰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55]

54) 《제주신보》 1952년 6월 5일자
55) 백인협(2008), 앞의 책, 48쪽.

〈사진 Ⅲ–27〉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교도연대 정문



출처 : 김웅철 소장

2–19. 운전병학교

2–19–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대정초등학교에 설립되었는데 이후에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제3연대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2–19–2. 설립년도

운전병학교는 1951년 5월 17일에 설치되어, 1953년 12월 1일에 해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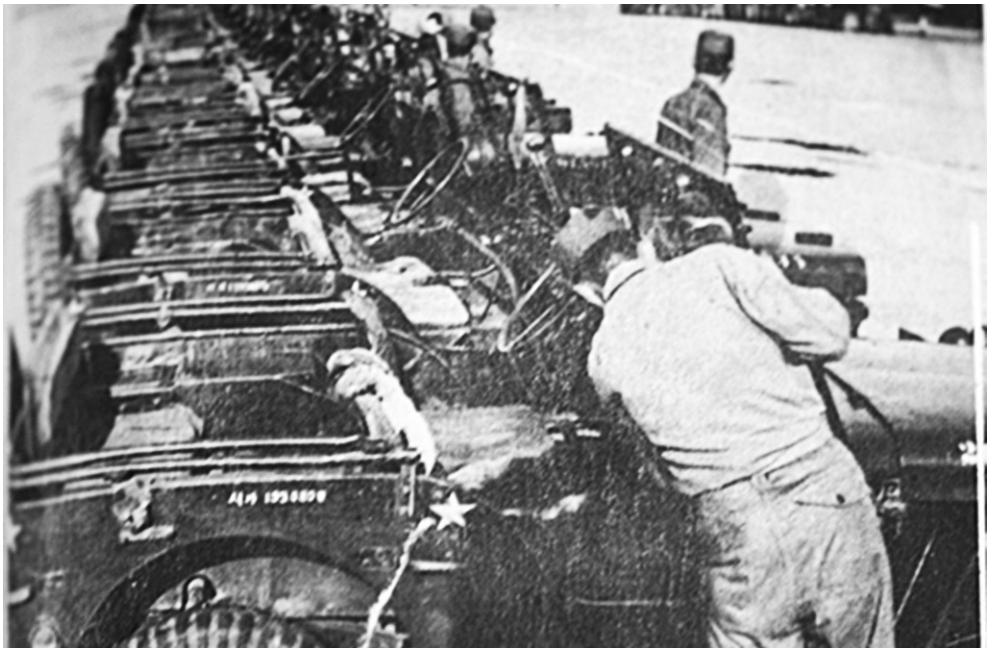
2–19–3. 개요

운전병학교는 신병들 중에서 교육훈련을 8주 정도 마쳤을 때 훈련소에서 선발을 걸쳐 입학할 수 있었다. 2017년 조사에서 조○완의 증언에 의하면 신병들은 하사관학교보다 운전병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운전병학교는 하사관학교보다 훈련 강도가 약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만일 제주도를 떠나더라도 운전병학교에 입학하면 전방보다는 후방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았기 때문이다.

교관 구성과 입교생의 숫자는 현재 알 수 없다. 하지만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규모가 커서 신병 및 기간사병들의 군사적 이동을 위해 운전병이 필요했으며, 식량 및 기타 군수물자를 이동해야 할 물량도 많아 운전병 양성이 필수적이었다.

〈사진 Ⅲ–28〉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운전병학교



출처 : 김웅철 소장

2–20. 군예대(軍藝隊)

2–20–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46번지 목조건물 2층(돈지동 마을)

2–20–2. 설립년도

군예대는 1951년 11월 13일에 설치되었다. 해체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폐쇄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20–3. 개요

우선,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소속인 군예대와 군(관)악대는 다르다. 《제주신보》 기사에서 군악대는 의식 때 뿐만 아니라 군 행사 사열에 참여한다. (군악대는) 군 행진곡과 더불어 군가 육탄10용사, 노들강변, 양산도 등을 연주한다. 이와 비교해서 "군예대(는) 작곡가 박시춘, 유행가의 왕자 남인수 등이 활약했다." 즉 군예대는 국내 유명 작곡가와 연예인 160여명으로 구성된 군대이며,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서 훈련병의 정신력 강화를 위해 위문 공연과 군가를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군예대는 하모리 목조 2층 건물에 기거(1층)하면서 예술 작업(2층)을 했다. 목조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건축되었으며, 제주4 · 3 시기에는 육군 특무대가 주둔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면서 이 건물에 군예대가 들어왔다. 하지만 서귀포시 2003년 도시계획 사업으로 2012년에 철거되었다. 그러나 옛 '군예대' 건물터 인근에 있는 대정읍 하모3리 섯산이물 공원에서 육군 제1훈련소 창설 63주년 기념일인 2014년 3월 21일에 '삼다도 소식' 노래비 준공 제막식이 열렸다. '삼다도 소식' 노래비는 한편에는 삼다도 소식 노래의 가사가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군예대에 대한 간략한 소개의 글이 적혀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46(돈지동 마을)번지 이곳에는 1910년대 건립된 2층 판자벽 목조 건물이 바다를 향해 있었다. 이 건물이 지어진 40여년 후 6 · 25 전쟁이 발발하였고, 1951년 3월 21일 '육군 제1훈련소'가 이곳 대정읍(당시에 대정면)에 설치되었으며, 그 해 늦가을에 이 건물 2층에 '육군 제1훈련소 군예대'라는 나무 간판이 붙여졌다.

군예대는 육지부에서 피난 온 유 호(일명 호동이), 박시춘 그리고 당시 가요계의 기라성 같은 스타들인 남인수, 고복수, 황금심, 신카나리아 등의 가수들과 주선태, 황 해, 구봉서 등의 인기 배우들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서라벌 악단 소속이었다. 임무는 전선에 투입될 장병들에게 필승의 상무정신을 드높이는 일이었으며, 위문 공연은 물론 수많은 군가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삼다도 소식'은 모슬포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지금은 없어져 버린 군

예대의 목조 2층 건물에서 유 호 작사, 박시춘 작곡, 황금심의 노래로 만들어졌으며, 실제 이들은 1층(2층은 주로 창작 활동과 노래 연습을 했음)에서 기거하였다. 군예대 건물에서 불과 1백여m 떨어진 바다에서 숨비소리를 들으며 만들어진 '삼다도 소식'은 훈련소 장병들을 위하여 수차례의 공연을 하고난 후 지역주민들과 피난민을 위한 공연을 하려고 하자 엄청난 인파(그 당시 대정면의 거의 모든 사람들)가 몰려들어 당초 계획했던 장소가 모자라 인성리 300–3번지로 옮겨 훈련소 창설 1주년 기념행사(군인 위안의 밤) 공연을 했을 정도였다."[56]

〈사진 Ⅲ–29〉 군예대와 삼다도 소식 노래 기념비



군예대 건물 옛모습



군예대 음악 활동



삼다도 소식 노래 기념비



삼다도 소식 노래 기념비

자료 : 《정책브리핑》 2009년 8월 5일; 《연합뉴스》 2018년 5월 10일; 2019년 9월 17일 촬영

56) 《제주신보》 1952년 6월 5일자

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기타 부대시설

3–1. 강병대(强兵臺)교회

3–1–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846번지

3–1–2. 설립년도

강병대교회는 1952년 5월 1일 공병대에 의해 착공하고, 같은 해 9월에 완공되어 군 교회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해체 시기는 훈련소의 폐쇄 시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후 지역주민을 위해 교회 및 사회봉사 활동을 이행하다 1965년부터 공군 제8546부대가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원형이 잘 보존된 상태이다.

3–1–3. 개요

강병대교회는 "예배당 595㎡, 교육관 51㎡로 전체 건물 면적은 646㎡(195평) 규모로 지워졌다. 건립 당시 목재 골조 위에 함석지붕을 씌웠으나 2006년 보수공사를 벌이면서 지붕과 교회 첨탑은 새롭게 단장했다. 뾰족 첨탑과 아치형 문과 창문, 스테인드글라스 등은 중세 고딕식 건축 양식으로 고풍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거무스름한 현무암 외벽은 제주도의 전통양식이 반영된 특성을 갖고 있다"[57]

제주도 현무암으로 지어진 강병대교회는 50년이 지나서 2002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제38호)로 지정됐다. 근대문화유산은 50년이 지나야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중 원형에 가깝게 잘 보존되어 가능했다. 또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근대문화유산 중에 가장 먼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훈련소 신병들은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서 훈련 중에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동료의 죽음을 보며, 또한 전쟁의 급박한 소식을 전해 들으며, 언제 전쟁터로 가야할지 등으로 극도의 두려움과 떨림 속에 훈련소 생활을 보내야만 했다. 이로써 이 교회는 훈련소 신병들의 정신력 강화를 위한 신앙의 힘과 정신적 위안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초대 훈련소장 백인엽 뒤를 이어 2대 훈련소장으로 부임한 장도영이 교회의 건립을 지시

57) 《제주뉴스》 2013년 1월 7일자.

하였고, 직접 '강병대교회'로 명명했다. 1956년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폐쇄될 때까지 약 50만 명 중에서 많은 신병들은 자고나면 전쟁터로 끌려갈 두려움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부 요인과 외국 사절단들이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에 의하면 강병대교회는 "오전에는 개신교가 예배드리며 목회 활동을 했으며, 오후에는 천주교에서 미사를 올리는 사목 활동(당시 군종신부 김병준)이 병행되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의 큰 목사들이 장병들을 위해 예배와 기도를 집전하려고 모슬포에 자주 찾기도 했다."

또한 "강병대교회는 어려운 주민들과 피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봉사와 전도 활동을 겸하기도 했다. 1952년에는 교회 부설 샛별유치원이 개원되어 제주 지역 유아교육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955년 육군 제2훈련소(연무대)로 통폐합되어 제주경비사령부가 들어섰고, 중학교 진학을 못한 어려운 소년 소녀들에게 통신 강의록으로 고등공민학교 과정을 개설하여 샛별유치원 건물에서 강의하였는데, 이는 도내 최초의 야간학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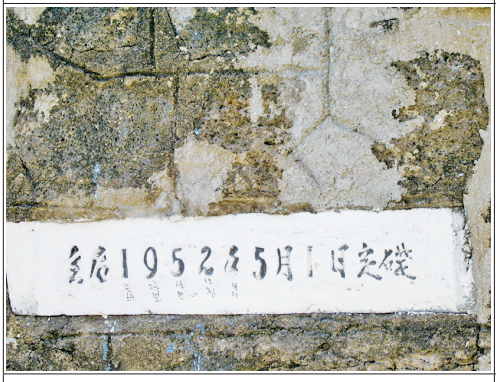
〈사진 Ⅲ-30〉 강병대교회



자료 : 김웅철 소장



자료 : 2009년 연구자 촬영



자료 : 2009년 연구자 촬영



자료 : 2009년 연구자 촬영

1965년부터는 공군 제8456부대의 기지 교회로 사용되면서 교회 부설 신우고등공민학교가 개설되었다가 1981년에 폐교되었다."[58] 《제주신보》 기사에 의하면, "신우고등공민학교(야간 중학과정)는 1981년에 폐교될 때까지 13회에 걸쳐 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에게 향학열을 불어넣어 줬다."[59]

3-2. 충혼비

3-2-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월롱동산

3-2-2. 설립년도

충혼비는 1953년 2월 중순경 공병대에 의해 착공하고, 그 해 4월 25일에 준공되어 1953년 4월 30일에 충혼탑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3-2-3. 개요

백인엽 초대 훈련소장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60] "6 · 25 전쟁 당시 새로운 병역법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국민방위군설치법이었다. (중략) 국민방위군 사령관이 예산을 횡령하면서 장병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모슬포에 도착하자마자 죽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하루에 30여 명이 죽는 경우도 있었고, 훈련도 오후에 겨우 시켰다. 이마저도 이겨내지 못하고 숨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탑을 세웠다."

백인엽(초대 훈련소장)이 세운 위령탑 위치에 오덕준(3대 훈련소장)에 의해 충혼탑으로 건립되었다. 이에 대해 《제주신보》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61] "대정면 전몰장병 충혼탑 건립 제막식은 예정대로 지난 30일 유가족을 비롯하여 최(崔)지사, 강병대(强兵台) 오(吳)부대장, 김(金)부부대장 등 각계 유지 다수 참석한 가운데 위령제와 아울러 엄숙히 거행되었다. 동면 하모리 월롱동산에 자리잡은 충혼탑과 묘지는 지난 2월 중순경 착공 이래 강병대와 면 그리고 지방 유지들의 비상한 노력으로 지난 25일 준공되었는데 이날 문(文)면장은 강병대 오(吳)부대장, 김(金)부부대장, 안(安)정훈부장에게 감사장을 증정하였다.

58)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참조
59) 《제주신보》 2016년 1월 15일자
60) 백인엽(2008), 앞의 책, 50쪽.
61) 《제주신보》 1953년 5월 3일자

(시) 충혼송 김종평 :

그대/ 살과 피와 뼈가루마져/ 조국의 주춧돌로 바치고/ 꽃익은 마을/ 살래동산에 돌아오다

그대의 핏물 거름하여/ 호국의 꽃내음/ 강산에 풍기나니/ 그 충혼 간추에 남으리

어화 어화/ 길이 구천에 진좌하리라”

〈사진 Ⅲ–31〉 충혼탑



자료 :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자료 : 2019년 9월 17일 연구자 촬영

3–3. 한글교육대

3–3–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지에 수용대와 함께 설치했지만 현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3–3–2. 설립년도

한글교육대는 1954년 1월 22일에 설치되어 동년 3월 20일에 해체되었다.

3–3–3. 개요

한글교육대는 1954년 1월 22일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전부터 한글을 가르치는 천막시설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준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용대 기간사병으로 근무했던 신○준은 다음과 같이 한글교육대를 설명하고 있다. “문맹의 신병들에게 훈련이 가능할 수 있는 한글을 일깨워 신병을 배치했는데 훈련소 입소 전 일

정한 장소에 모여서 한글을 교육시켰다. 최대 2주 교육을 시키는데 훈련소 교육기간 16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문맹의 신병들에게 교육훈련 관련 전문 단어들에 대한 한글을 교육시킨 후에 훈련소 부대 배치가 이뤄졌다. 중 ·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들이 주로 가르쳤는데 이들 중에는 제주도 출신도 있었다. 주로 수용대 내 천막 막사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제주도 출신보다는 육지 신병들이 많았다."

3–4. PX

3–4–1.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신영물 근처

3–4–2. 설립년도

PX는 1953년 8월 1일에 설치되었지만 해체 시기는 현재까지 파악할 수 없다.

3–4–3. 개요

PX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내 군인 전용 PX가 아니었다. 향토역사 전문가 김○철의 설명에 의하면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 가족을 위한 PX가 신영물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신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62]

"육일훈 PX가 설치되었다. 막대한 수의 병원과 군인 가족들을 보유하고 있는 육일훈에서는 군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PX 설치를 계획해 오던 바 드디어 지난 1일 군도(軍都)) 모슬포에서 문을 열게 되었다. 종전까지 생활필수품 구입은 생산자로부터 2중 3중의 중간 매개인을 거쳐서 소비자의 손에 입수됨으로 소비자로서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더욱이 군인 가족으로서는 과도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번 설치된 PX는 생산자로부터 혹은 육본 PX로부터 혹은 직영공장으로부터 직접 구입함으로서 시장 현 시가의 1할 내지 2할 염가로 군인 가족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바 재고 품목은 생활필수품 일절이며 사진부, 리발부, 식당도 운영하게 되었는데 대상은 군속 및 군인 가족에 한하여 특히 통장을 실시하여 양비 방지와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리라 한다. 한편 이 PX는 각 단위 부대 운영을 통일적으로 사병을 위주로 한 양질 물품을 조달코자 통일된 가격을 제시하여 사병의 사기앙양에도 지대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간모리 상인을 배척하여 군인과 군인 가족의 생활 안정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 하며 PX의 이용자가 많을수록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리라 한다."

62) 《제주신보》 1953년 8월 15일자

4. 미확인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현재까지 문헌자료와 면담조사를 통해 파악하지 못한 미확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4–1. 경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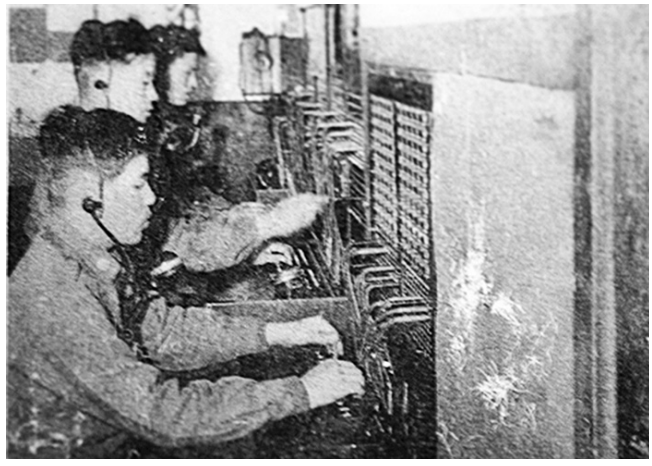
경비대는 1953년 2월 7일에 설치한 것이 분명하지만 해체 시기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폐쇄 시기와 일치할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경비는 처음에는 헌병대가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헌병대의 업무가 확충되면서 또한 중공군 포로수용소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비 업무만을 담당하는 경비대 설치가 요구되었다. 경비대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정문과 각 연대 및 부대시설 그리고 중공군 포로수용소의 경비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육군 제1훈련소에 경비대가 1953년 2월 7일에 설치되면서 헌병대의 경비 업무를 이전 받게 된다.

4–2. 통신대

통신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중심부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통신대 업무가 막중하였기 때문이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선의 소식을 즉각적으로 전했을 것이고, 육군 본부의 훈련소에 대한 전체의 명령도 통신대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통신대의 위치뿐만 아니라 부대 규모 등도 파악하지 못하였다. 단지 향토역사 전문가 김○철에 의해 소장된 사진 한 장이 통신대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사진 Ⅲ–32〉 제주 육군 제1훈련소 통신대



출처 : 김웅철 소장

4-3. 군악대

군악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설치했다는 증언이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 또한 군악대의 창설 시기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군예대가 군악대보다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군예대와 군악대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군악대는 군예대 예하부대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군예대와 군악대는 별개이며, 그 역할도 다르다. 〈사진 Ⅲ-33〉에서 알 수 있듯이 군악대는 신병 배출 기념 체육대회에도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Ⅲ-33〉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군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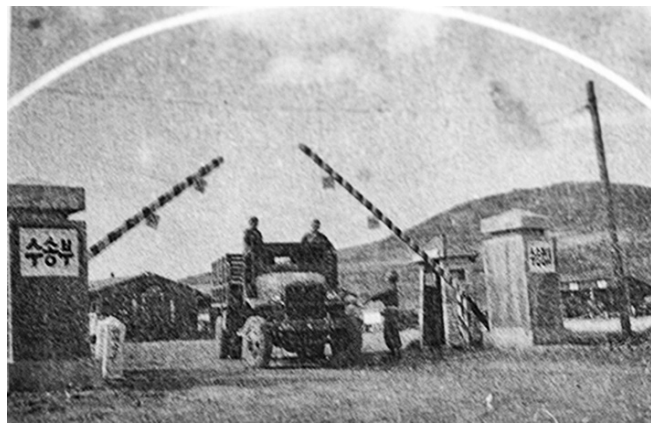
출처 : 김웅철 소장

4-4. 수송대

수송대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중심부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설치 일자와 해체 시기도 알 수 없지만 통념적으로 공병대와 함께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 준비 시기와 맞물려 설치되어 해체 시기도 훈련소의 폐쇄 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사진 Ⅲ-34〉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수송대



출처 : 김웅철 소장

분포 규모가 제주도 전역으로 추정한다면 수송부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다. 몇 만 명에 달하는 신병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을 수송했기 때문에 부대 규모도 클 수밖에 없었으리라 판단된다. 수송대는 많은 수송 차량, 수송 기간사병, 보수 및 수리를 담당하는 사병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사진 Ⅲ-34〉에서 보듯이 수송부의 정문과 뒤로 보이는 막사에서 수송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4-5. 기타 미확인 부대시설

미확인 부대시설은 앞에서 언급한 4개 부대 이외에 더 존재하고 있어 향후 조사를 위한 연구 과제이다. 예를 들면,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내에 설치되어 있던 의무대, PX, 각 연대별 신병 식당, 하사관교육연대 식당, 장교 식당, 기간사병 숙소, 목욕탕, 이발소, 빨래터, 면회인 숙박시설 등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증언들의 고령으로 인해 면담할 수 있는 숫자가 부족하고, 거의 70년에 이르는 기간을 경과하고 있어 기억으로 찾아내기도 어려웠다. 이는 앞으로의 조사에서도 어려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Ⅳ. 결론과 제언

1. 결 론

본 조사 연구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의 위치, 특히 연병장, 종합훈련장, 각 연대, 숙영지, 하사관교육연대, 항만대, 수용대, 급양 생산대 등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자료, 신문기사 그리고 면담조사 및 현지답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향토역사 전문가를 통해 면담조사와 현지답사를 진행하였고, 부대시설의 위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문헌 그리고 비공개 군사 체험 일기 등을 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지금까지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의 위치는 모슬포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는 신병과 하사관교육연대 숙영지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훈련소 소속 숙영지들은 식수와 훈련할 수 있는 넓은 토지를 이용해서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용대 기간사병으로 근무했던 신○준 선생님을 만나 수용대가 이전하게 된 상황과 위치 그리고 한글교육대의 기능 등을 숙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병참대에 근무했던 이○돈 선생님을 만나 병참대의 위치 그리고 급양 생산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면담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규모와 더불어 보다 명확한 부대시설의 위치를 찾아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간적 한계 그리고 기간사병을 지낸 훈련소 참여자를 찾아 면담하기가 쉽지 않았다. 제주도 출신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신병 혹은 기간사병으로 근무한 조사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만일 조사를 다시 시도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육지부의 조사 대상자(특히 장교 혹은 기간사병)를 물색하여 조사해 보고자 한다.

부대시설 위치에 대한 조사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지도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명확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지도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지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관련 근대문화유산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관련 등록문화재는 현재까지 3곳(훈련소 본부, 강병대교회, 육군 제98병원)이 지정되었지만 가장 중요성이 인정되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 현재까지 지정되지 못하였고, 충혼탑 등도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음의 조사를 위해서는 우선 본토(육지)를 선택하여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신병으로 참여했던 대상자보다는 장교 혹은 기간사병을 물색하여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기간사병인 경우 훈련소에서 제대할 때 각 근무 부대에서 소속병사들과 함께했던 추억의 방명록을 만들어 주었다. 그 방명록에는 사진들과 소속병사들의 짧은 글들이 적혀져 있다. 이런 사진들과 제대 축하 글들이 향후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대상자들이 고령이거나 사망했을지라도 이런 내용들이 조사에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미확인 부대시설 위치를 파악해야 할 과제가 남겨져 있고,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이외의 6 · 25 관련 군사시설들도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창설과 운영은 제주도의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른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2. 정책적 제언

우선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관련 문화재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다. 모슬포 지역과 그밖에 분포하고 있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관련 문화유산 중에는 보존이 잘되어 있는 문화재도 있지만 보존 상태가 불량하거나 훼손 및 파괴된 문화재가 상당히 많다. 이에 대해 문화적 차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복원 계획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존이 잘 된 문화유산은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체계 작성 그리고 우선 축소된 복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문화재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2020년은 6 · 25 발발 70주년이며, 한국 최초이며 최대 규모로 창설된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문화재에 대한 활용 가치의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다. 우선 한국군 전적지로서 제주도 초 · 중 · 고 학생들에게 한국전쟁의 실상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이며, 당시 신병들이 훈련을 받았던 장소에서 체험 활동을 하며 제주도민의 피해의 흔적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신병 훈련소였다는 점에서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는 세계

관광지로서 그리고 세계평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관련 부대시설들이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속해서 지정된다면 그리고 일본군 전적지와 맞물려 국가문화유산으로서의 등재를 기대해 볼만하다. 한국 최초이며 아시아의 최대 규모의 제주 육군 제1훈련소와 더불어 일본에서도 현재 찾아보기 어려운 일제 전적지를 포함하면 국가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요인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서 1952년 당시의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일정 부분 복원이 진행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능성도 논의해 볼 수 있다.

3. 향후 연구 과제

본 조사 연구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의 위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부대시설의 위치를 파악하여 지도체계를 구축하는데 현재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지도체계 혹은 축소된 복원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각 연대의 내부반의 생활, 부식의 지급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돌과 나무를 기반으로 지어진 막사 내무반은 모슬포 지역의 찬바람에 어떻게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제주신보》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무반 완비) 바람이 많은 이 지역에서는 천막보다는 개량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다. 돌이 많은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서 벽은 전부가 돌과 석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은 무료로 병사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여기저기서 운반해서 만든 것이다. 과반이 무료로 구축한 이 시설물은 견고하고 외관상 미려(美麗)하여 위생적이나 기분도 매우 좋다.”

신병의 부식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제주도에서 훈련을 마치고 육지로 전출을 가게 되면 ‘명태’가 온다고 놀림을 받았다는 증언들이 많았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를 생각하면 ‘배가 고팠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신보》 기사에서 “(급양 생산대) 양계장과 양돈장도 잘 운영되고 있다.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달걀은 입원 병사에게 보양으로 제공하고 있고, 양돈장에서 다량으로 생산되는 도야지는 사병의 부식으로 등장하여 사기를 고무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사도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또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뿐만 아니라 소장이나 장교, 기간사병 등 영외 거주자들이 생활하였던 건물들도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특히 훈련소장이 거주했던 건물은 사라지고 없지만 위치는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수용대 기간사병으로 근무했

던 신○준의 증언에 따르면 사계리에 영외거주 기간사병들이 많이 생활하였으며, 상권도 번성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자 제주도민은 훈련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땔감을 지원하였고, 식사를 위해 채소류를 필두로 다양한 부식물도 지원하였다. 또한 모슬포 지역 여성들은 훈련소의 빨래를 도왔다는 증언들도 들을 수가 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군(軍) 도시였던 모슬포 지역은 그 당시 제주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다. 또한 훈련소의 부정부패에 대한 뉴스가 신문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하였다. 특히 훈련소를 건설하면서 제주도민의 넓은 토지를 수용하였고, 이에 대해 훈련소장의 도민 이해와 토지 반환과 관련된 기사와 문헌자료들이 밝혀지고 있다. 문화적 측면으로는 제주 육군 제1훈련소가 들어오면서 제주 문화의 새 길을 열고 있다. 특히 음악에 기여한 공헌이 크게 지적되고 있으며, 교육에서도 주목할 만한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체육 종류(야구, 정구, 배구 등)를 보급하였고, 군관민 체육대회를 통한 체육활동들을 연병장에서 주기별로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신병들을 강경하게 훈련시켜 전쟁터로 보내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와 동시에 제주도의 사회, 경제,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지속적이고 부차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신병교육 기능과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6 · 25 당시 모슬포 지역에는 군 흔적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과 조형물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중공군 포로수용소, 공군사관학교 훈적비, 육군 보병 제29사단 사령탑 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미확인된 부대시설도 있지만 포로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공민학교 등도 존재했다. 특히 50년이 지난 6 · 25 관련 근대문화유산은 대한민국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3개 등록문화재만이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까지도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 6 · 25 관련 제주도에 남겨진 시설과 조형물들이 보관 상태가 양호하여, 공공시설이나 국가 혹은 지자체 소유지 지역에 놓여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등록문화재 타당성 조사를 통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하는 조사 연구들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논문/ 단행본**

고광명 · 황석규 · 송 훈(2017),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 경상남도 함양군을 중심으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국방군사연구소(1994), 『국방사년표 1945–199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6 · 25전쟁 여군 참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4), 『통계로 본 6 · 25전쟁』.

국방부(1954), 『국방부사』 제1집.

국방부(1967), 『한국전쟁사』 제1권.

국방부(1992), 『국방조직변천사』.

국방부(2008), 『국방저널』 7월호, 42–51.

김웅철 편저(2006), 『역사사진자료집 : 强兵臺(陸軍第1訓練所)–그리고 摹瑟浦』, 남제주문화원.

남제주군(2005), 『모슬포 전쟁유적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수립 보고서』.

大韓民國武功受勳者會 濟州市支會(2011), 『國家有功者 武功受勳者名鑑』.

大韓民國武功受勳者會 濟州特別自治道支部(2008), 『武勳二十年史』.

백선엽(2011),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1128일의 기억』 제3권, 중앙일보.

백인엽(2008), 「전쟁 능력 갖춰야 진정한 군인이다」, 『국방저널』.

서귀포문화원(2010), 『우리고장의 유적들』.

서귀포문화원(2018), 『제주 근현대사 200년이 녹아 있는 대정현 다크투어 유적』.

申瑢俊(2016), 『米壽紀念 申瑢俊 行錄 德齊常靑』, 도서출판 글공작소.

육군본부(1956), 『6 · 25사변 국방전사(인사편)』.

육군본부(1970), 『육군발전사』.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프란체스카 도너 리(2010), 『6 · 25와 이승만–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기파랑.

Kenneth W. Myers,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KMAG's War time Experiences, 11 July 1951 to 27 July 1953, (Undated)", (RG338, Military Historians Files, Box 12~13, NARA).

■ 홈페이지 및 웹페이지

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http://seogwipo.grandculture.net)

전쟁기념관(http://www.warmemo.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백선엽(http://blog.daum.net/koreanmarinecorps)

■ 신문기사

《연합뉴스》 2016년 6월 24일

《중앙일보》 2010일 11월 9일

《제주신문》 1996년 6월 25일

《제주신보》 1950~1956년

《제주신보》 1952년 12월 20일

《제주신보》 1952년 12월 22일

《제주신보》 1952년 6월 5일

Abstract

An Oral Investigation of the 1st Jeju Army Training Center
- Focusing on the location of the military facilities -

Suk-Kyu Hwang, Kwang-Myoung Koh, Hoon Song

Keywords : the 1st Jeju Army Training Center, location of the military facilities, size and location of training camp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location of the military facilities of the 1st Jeju Army Training Center, such as the military training ground, the general training camp, each regiment, the recruit camp, the sergeant training regiment, the sergeant training regiment camp, the port unit, the provision unit, and the feeding and production unit.

Literature and newspaper articles were reviewed, and interviews and survey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location of the military facilities of the 1st Jeju Army Training Center. In particular, an investigation with local history experts was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and surveys, and the location of the military facilities was checked several times. This served as an opportunity to collect the photographs, literature, and private military experience diaries they had kept.

Although previous investigations of the 1st Jeju Army Training Center were limited to only the military facilities located in Moseulpo, this investigation gave an opportunity to explore the camps of recruits and sergeants. The camps in the training center were found to have been established considering drinking water and using a large area for training.

The investigation into the location of the military facilities of the 1st Jeju Army Training Center may play a part in developing a map system for the training center. Although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detailed map system of the 1st Jeju Army Training Center through this investigation, it is clear that this investigation was an attempt to lay a foundation to use its findings as basic data. In addition,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may provide significant basic data for designating the modern cultural heritages related to the 1st Jeju Army Training Center as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Four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the 1st Jeju Army Training Center have been registered up to now: the training center headquarters, former Marine facility, Gangbyeongdae Church, and Army 98 Hospital. However, the main gate of the 1st Jeju Army Training Center, which is recognized as the most significant, has not been designated yet. The war memorial monument, called Chunghon-tap in Korean, also has the conditions to be designated as a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in terms of its conservation status.

부 록

▣ 자문위원 회의록

제 목 :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부대시설 위치를 중심으로
일 시 : 2019년 8월 2일(금); 2019년 8월 18일(토)
장 소 : (사)대정현역사문예포럼 사무실; 제2숙영지(중문) 야외 커피숍
자문위원 : 김 웅 철, 이 광 우
참 석 자 : 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

자문 내용

1. 김 웅 철(사단법인 대정현역사문예포럼 이사장)

- 현재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전체 부대시설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다양한 부대시설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주요 부대시설을 정리하고, 점차적으로 위치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교와 기간사병들의 기록물과 증언을 통해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제주지역에 생존하고 있는 장교와 기간사병의 수는 아주 제한적이어서 구술조사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지정에 주목해야 하는데 현재 해병대 지휘소, 강병대교회 그리고 육군 제98병원이 등록되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훈련소 정문과 충혼비가 등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그 당시 모슬포 지역에서의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 대한 조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2. 이 광 우(전 KBS 보도영상취재부장)

-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부대시설 위치가 파악되었다면 영상 촬영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 6 · 25전쟁 관련 영상은 많은 분량이 보존되고 있는 반면에 그 당시 제주 육군 제1훈련소에 대한 영상은 찾아보기가 어려움. 현재 파악되는 부대시설의 위치에 대해 드론을 포함한 영상 촬영이 시급함.
- 영상물을 통해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존재를 홍보할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함. 현재 제주도민을 포함한 한국인 전체가 거의 제주 육군 제1훈련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전문가 회의록

제　목 :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부대시설 위치를 중심으로–
일　시 : 2019년 11월 8일(금)
장　소 : (사)제주다문화교육 · 복지연구원
발표자 : 황 석 규
토론자 : 강 문 규, 김 순 임
참석자 : 고 광 명, 송 훈, 이 광 우

토론자 : 강문규(전 한라일보 논설실장)

- 1990년 무렵 제주신문 주관으로 알뜨르비행장 관련 대공원 조성 사업 계획을 진행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람.
- 성읍마을에 이봉주와 변정섭 선생님이 계신데 오현고등학교 초창기 밴드부 멤버로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군악대에 도움을 받아 악기 연습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음. 그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임.
- 약 6개월 동안의 조사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다.

토론자 : 김순임(제주대학교 특별연구원)

- 선행연구에서의 7페이지 4쪽『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 부대시설 위치를 중심으로』에서 소제목을 선행연구로 착각할 소지가 있으니 다르게 서술하기 바람.
- 9쪽 1950년 8월 3일에 제주도 출신으로 약 3천명이 참가한 학도병 돌격대(해병 3기와 4기)에 대한 자료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람.
- 6개월의 조사기간도 짧지만 예산이 적은데도 훌륭한 작업이었음.

연구팀

- 이번 조사를 통해 병참대, 급양생산대 그리고 한글교육대 등 생소한 부대시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음. 또한 신병 숙영지들에 대해 현지답사를 진행하면서 신병교육훈련에서 식수의 중요성을 깨달았음.
- 다음 조사는 본토(육지)의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장교와 기간사병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제주 육군 제1훈련소 부대시설 구술채록 조사카드

증언자 정보	이 름	강 ○ 남	생년월일	1928년 6월 10일
	계 급	하사	군 번	9200838
	입대일	1950년 8월 5일	전역일	1953년 12월 10일
	출신지	조수리	학 력	
	직 업	농업	결 혼	
	훈 격	화랑무공훈장(도솔산 작전)		
	참전 전투	인천상륙, 원산상륙, 서부전선, 영월지구, 김일성고지 전투		
	주 소	한경면 조수리 459		
훈련소 입소 동기	23세 때 징집으로 입대했음. 조수국민학교에서 집합하여 트럭타고 대정으로 갔음. 각 부락마다 골고루 갔는데 45명 중 4명이 조수리 출신이었음. 1950년 8월 5일 입대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는지, 6.25가 일어났는지 잘 몰랐음. 한림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모슬포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각 지역에서 왔음. 당시 1 · 2기생은 해군(간부), 3 · 4기는 학도병으로 모집했음. 3기 4명, 4기 4명 등 총 8명이 훈련을 받았음.			
훈련소 생활	소속은 3대대 9중대 4소대. 모슬포 연병장 안에서 각개전투 훈련 등 1개월 정도 교육을 받음. 사격 훈련은 일본인들이 사용했던 총을 갖고 교육을 받음. 무기(목총)가 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 훈련을 받을 때 기합이 강했는데 밧따로 때리거나 정신 기합도 있었음. 한 사람이 틀리면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했음. 바닷가에 가면 원숭이처럼 되어서 어떤 물을 먹었는지 모름. 매 맞는 것 외에 기억나는 것이 없음. 기억나는 사람은 2명 정도임(대대장 김융근, 중대장 서판기, 소대장 모름).			
퇴소 후 상황	1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진해로 갔음. 식사는 밥, 돼지고기(국) 등 1일 3식으로 양호했음. 갈 때 LST 배 위에서도 훈련을 받거나 병사에서 취침했음. 인천 상륙작전 당시 진해에서 1박을 하고 부산으로 갔음(미군 보급품 수령). 무기는 M1총(화기소대 소속)으로 부대에서 무기를 청소하느라 고생했음. 상륙작전 전날 한사람이 사망했음. 부산에서 훈련을 받은 후 인천상륙작전, 김포작전 등으로 이북까지 갔음. 1 · 4 후퇴 때 병원에서 생활했음(현재 상의군인 미등록). 입원 한 달 후 동부전선, 서부전선 등으로 작전 투입. 1953년 휴전 도중 일등상사로 제대했음. 일선에서 근무할 때 고지 탈환하는 작전을 수행했으며 후방에서 하사관 교육을 받았음. 제대 후 결혼했는데 월급이 있었는지 몰랐으며 실제로는 월급이 없었음.			
부대시설 인지	제대 후 모슬포에 갔더니 부대시설 위치 등 장소를 잘 알지 못했음.			
제주도 훈련소 상황				
기타	제주4 · 3 당시 부락들이 소탕되어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해변으로 소개되어 갔음. 재건 당시 성을 둘러서 지서에서 근무할 때 청년단원들에게 1주일에 몇 번 정도 교관(장교)이 목총으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훈련시켰음.			
일시 · 장소	2019년 7월 23일(화) 조수리 자택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table>
<tr><td rowspan="6">증언자
정보</td><td>이 름</td><td>김 ○ 원</td><td>생년월일</td><td>1932(1933)년</td></tr>
<tr><td>계 급</td><td>일등상사</td><td>군 번</td><td>5305634</td></tr>
<tr><td>입대일</td><td>1953년 3월 17일</td><td>전역일</td><td>1961년 6월 20일</td></tr>
<tr><td>출신지</td><td>한림읍</td><td>학 력</td><td></td></tr>
<tr><td>직 업</td><td>특무대 근무</td><td>결 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한림읍 대림리 1820</td></tr>
<tr><td>훈련소
입소 동기</td><td colspan="4">1953년 3월 17일 특무학교 입교하여 2개월 교육(하사관)을 받고 강원도 춘천으로 발령 받아 8개월간 근무했음.</td></tr>
<tr><td>훈련소
생활</td><td colspan="4">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진급이 안 되었으며, 1956년 일등중사로 제주도에 갔음. 군 생활 12년 중 4년 동안 제주도에서 근무했음.</td></tr>
<tr><td>부대시설
인지</td><td colspan="4">수용대
제주도로 발령을 받은 후 1956년 한라기업사 우편물(우체국) 수령을 담당하면서 4~5개월 동안 근무했음. 508특무대 제주본부(제주시 위치)가 설치되어 성산포에서 3개월 파견 근무(특무과)했음.
하모리 시장 옆 기와집에 6 · 25특무대를 설치한 후 특무과에 배속되어 주로 공민학교에서 시찰했음. 수용대에 파견되어 공민학교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았음. 강병대교회(상모리) 쪽으로 걸어서 가는데 30분 정도 걸렸음. 모슬포 시내에서 강병대교회와 훈련소 정문 사이 길로 들어가서 수용대 벽을 같이하여 뒤에 공민학교가 위치하였음. 4~5개월 파견을 갔을 때 완전 폐쇄되어 있었음.
육군 제98병원과 교수단
육군 제98병원과 교수단은 상모리에 위치했는데 처음으로 육군 제98병원 근무했음. 교수단 소본부(상모리 바로 옆)에서 수백 명의 장교 동향을 기록하고 체크하느라 바빴음. 거주지는 모슬포 시내에서 걸어서 가면 10~20분 거리로 한 달 동안 근무했음. 6 · 25 특무대에서 근무(하모리 시장통 바로 옆)할 때 대장은 소령(이용해)이었음. 신원조회(신원조사), 비밀문서 취급(1급) 등 장교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동태를 파악했음.
훈련소 이후 군 생활
훈련소가 없어지면서 508특무대(제3본부)로 복귀했음. 이후 성산포에서 3개월 근무했는데 한 달에 한번 들어왔음. 한림지역이 너무 커서 1년 반 정도 책임자로 근무(이등상사)하고 나중에 본부로 오라고해서 특무조사 계장(2년 근무)을 맡아 제주도에서 총 4년 근무(2년에 한번 정도 교육)했음.
한 달 정도 교육을 받고 인천 특무대로 발령을 받은 후 1년 동안 특무대 과장(수원 분견대장으로 일등상사)으로 하사관 중에서 제일 고참이었음. 분견대장 4개과(행정과 발령 5개월)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군수계장 겸 행정계장(겸직) 4곳에서 파견 근무(수원)했음. 해변가 근무 당시 근무처 이동으로 이등상사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서 1년 반 이상 근무하고 행정계장 반년 근무, 그리고 특무대 검문소 근무 한 달 만에 제대했음.</td></tr>
<tr><td>제주도
훈련소 상황</td><td colspan="4">당시 오현중학교(중앙로) 자리에 병사구사령부(현 병무청)가 있었음.</td></tr>
<tr><td>기타</td><td colspan="4"></td></tr>
<tr><td>일시 · 장소</td><td colspan="4">2019년 7월 23일(화) 한림읍 자택</td></tr>
<tr><td>조사자</td><td colspan="4">황 석 규, 고 광 명</td></tr>
</table>

<table>
<tr><td rowspan="6">증언자
정보</td><td>이 름</td><td>신 ○ 준</td><td>생년월일</td><td>1930년 4월 3일</td></tr>
<tr><td>계 급</td><td>이등상사</td><td>군 번</td><td>0309889</td></tr>
<tr><td>입대일</td><td>1950년 9월 1일</td><td>전역일</td><td></td></tr>
<tr><td>출신지</td><td>이도동</td><td>학 력</td><td>제주농업학교</td></tr>
<tr><td>직 업</td><td>학생</td><td>결 혼</td><td>기혼</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이도2동 1259–10</td></tr>
<tr><td>훈련소
입소 동기</td><td colspan="4">1950년 19세 때 결혼해서 입대했음. 부친이 몇 대 독자라서 제주농업학교 재학 중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입대했음.
육군 제5훈련소 9사단 입소해서 교육훈련을 받은 후 보병 제9사단 제30연대로 전속(제9중대 배속)되어 북진명령으로 38선 인제 잔교리에 주둔했음. 그 당시 노인 부부가 있어서 시루떡(강냉이)을 주어서 먹은 기억이 있음. 아들들이 인민군과 한국군으로 입대해서 서로 싸우고 있다면서 울었다고 함.</td></tr>
<tr><td>훈련소
생활</td><td colspan="4"></td></tr>
<tr><td>퇴소 후 상황</td><td colspan="4">수용대 이전 군 생활
1950년 제5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후 제9사단으로 배치되어 매봉산과 한석산 등 높은 고지 전투에 직접 참여한 후 전투에서 세운 공로로 훈장(금성화랑무공)을 받고 하사에서 이등중사로 1계급 특진되었음. 그 당시 한국 부대 군인들이 많이(60% 이상) 전사하였음.
1951년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395m)전투 참여 당시 인민군들이 방멩이 수류탄을 던져서 그때 가슴에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었음. 매봉산 전투에서 강원도 금화로 옮기면서 1개월 동안 예비대로 편성되어 원산에서 평양까지 갔음. 도로에 주둔해서 도로정비를 하거나 공비를 소탕(금화 경비대)했음. 1951년 강원도 철원 매봉산(950m)전투에 참가했음. 폭격을 많이 해서 395m 고지 산이 하얗게 변했음. 당시 인민군 당사에 주둔(현재 문화유산으로 보존)했음. 철원에서 제주도 출신 군인(친한 육군 소위 고○○ 등)들이 많이 죽었음. 백마고지 전투 참가 전에 본인 이름(장교, 하사관 등)이 호명되어 보충대로 가게 되었음. 부상당한 것을 알았는지 살고 싶고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했음.</td></tr>
<tr><td>부대시설
인지</td><td colspan="4">수용대, 연대, 본부, 교도연대, 운전병학교
1952년 제1육군훈련소 수용대(사계리) 배치를 받고 근무(이등상사로 진급)했음.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제2훈련소와 제5훈련소가 통합했는데 나중에 훈련소는 강병대로 명칭 변경했음. 본부 위치는 헌병대와 수용대 사이 전면(훈련소 내)에 있었음.
처음으로 수용대(사계리) 초가집에서 근무했음. 중공군 포로수용소가 철거(폐쇄)되어 수용대가 이전하면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음. 수용대장은 대령 혹은 준장이었음.
수용대 역할은 신병들이 LST(군용 수송함)를 타고 화순항에 도착하면 항무대(항만근무)에서 신원을 파악하여 수용대 기간사병에게 인계하면 신병들의 여러 상항을 고려하여 부대 배치를 진행하는 것이었음. 그러고 나면 기간사병이 신병들을 산방산 앞(항무대)에 집합시켜 수용대(사계리)까지 도보로 걸어가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었음. LST 1척에 1,000명 수송했는데 하루에 2.5척이 올 정도로 이틀에 최대 5척이 도착했음. 전사자가 많을수록 LST를 많이 보내 왔으니 그 만큼 전선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함. 하루에 LST 몇 척이 오느냐에 따라 한국군 전선 상황이 파악되었음. 옷을 입고 오거나 훈련소에서 입히는 경우도 있었음.
수용대 병무과(병무 계장)는 의무대에서 신체검사 후 부대 편성을 하게 되는데 몇 명 정도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었음. 작전과(선임하사 일등중사)는 부대 편성 등 이런 저런 업무(행정과)를 수행했음. 인사과(선임하사 이등상사)는 수용대 기밀 및 행정요원이나 기관요원 배속 등을 담당해서 지위가 최고로 높았음.</td></tr>
</table>

	수용대 기관사병은 사계리 가정집에서 많이 거주했는데 이경우(전 제주도 기획실장) 부친 집에 거주했음. 전방에서는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훈련소에서는 재워주고 월급도 받았음. 훈련소에서의 월급은 당시 화폐 단위인 환(圜)으로 받았음. 상사들은 사계리에서 영외 거주를 많이 했는데 그곳에 장교들이 많아 살았음. 훈련소에 일찍이 가야해서 9시 전에 정시 출근했음. 산이수동은 사계리에서 영외 거주할 때 수용대와 가깝고 술집이 많아 한일 소주에 해산물(조개, 전복) 안주로 회포를 풀었음. 부락에 해녀가 있어서 가능했고 산이수동 앞 바다를 해수욕장으로 이용했음. 기관병 및 장교는 4년 만기 제대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짐. 본인은 일등상사로 5년 1개월 근무했는데 1955년 10월 일등중사에서 상사 진급을 빨리하게 되어서 1년 더 근무했음. 수용대 식당은 본부를 중심으로 장교 식당, 하사관 식당, 사병 식당으로 구분하여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어 있었음. 식사로는 백반. 부식(김치, 국, 고기, 콩나물, 해산물 등)이 나왔는데 매일 나오지 않았으며, 신병하고는 차이가 있었음. 수용대장이 바뀌면 신임 수용대장이 부임하기 이전까지 부대장에게 시켜서 전 신병들에게 비상이 많았음. 인사과에서 선임하사로 데려갔으며 연대장이 좋아했음. 제복에 단화를 신고 다녔는데 어떤 연대장(대령)이 발로 찬 적이 있었음. 기간사병 중에는 제주도 사람이 300명 이상 있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하사관학교 출신이거나 외부에서 들어왔음. 수용대 업무는 본부에 자주가지 않고 전화로 연락했음. 산방산 서쪽(제1~9연대는 차례대로 인성리까지 포진되어 있었음) 사계리 부락에 연대가 있었는데 인성리가 아닌 중앙으로 길이 나 있었음. 본부(모슬봉) 앞에 운암연병장이 있었고 부대 막사(쓰러져 가는 초가집)는 수용대 안에 있었음. 교도연대는 모슬봉 앞에 있었고, 운전병학교는 대정초등학교에 있었음. **기타** 온양 방위학교는 6 · 25 이전 졸업하면 예비역 소위로 임관했지만 6 · 25 발발하자 현역 소위로 임관했음. 제주도 출신으로 홍병철(제주시 출신), 서두수(고산 출신, 현역 소위에서 대령,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사), 김봉수(육군 중위–대위, 온양방위학교 예비역 소위, 제5훈련소 소대장 역임), 장승경(회수 출신, 육군 소위, 신병 소대장 역임) 등이 있었음. **군악대** 군악대는 2개 존재(훈련소 본부, 상모리)했음. **급양생산대** 급양생산대는 정확한 위치를 모르지만 부대마다 있었음. **교육대** 교육대는 수용대 전신임. **한글교육대** 문맹의 신병들에게 훈련이 가능할 수 있는 한글을 일깨워 신병들을 배치했는데 훈련소 입소 전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한글을 교육시켰음. 최대 2주 교육(16주 훈련에 미포함) 후 부대 배치를 받았음. 중 ·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들이 가르쳤는데 이들 중에는 제주도 출신도 있었음. 주로 수용대 내 막사(천막)에서 집중 교육했는데 제주도 출신보다 육지 신병들이 많았음.
제주도 훈련소 상황	
기타	한림국민학교에서 몇 백 명이 모여서 전장으로 갔는데 많이 사망했음. 같이 간 사람도 있고 흩어진 사람도 있고 해서 전쟁은 비참한 것임.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밤 같이 있다가 내일 쓰러져서 죽었음. 백마고지, 한석산 전투 등 앞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음.
일시 · 장소	2019년 8월 2일(금) 이도동 자택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증언자 정보	이 름	이 ○ ○	생년월일	1928. 9. 25
	계 급	이등중사	군 번	0646264
	입대일	1951년 9월	전역일	1955년 10월
	출신지	충남 홍성군	학 력	무
	직 업		결 혼	미혼
	주 소	서귀포시 하효동		
훈련소 입소 동기	1951년 9월 23세 때 소집으로 입대했는데 그 당시 학도병은 자진 입대했음. 대전 홍성군에서 50명 정도, 구학면에서 10명, 내현리 1명(본인)이 입대했음. 학교에 몇 천 명이 모여 있었음. 군산에서 출발하여 화순항에 도착한 후 보충대에서 3일 정도 대기했음. 1개 중대 500명씩 2개 중대가 있었음.			
훈련소 생활	훈련소에서 배가 고픈 것이 생각남. 급식 양이 작아서 밥 한 방울에 무우국이 제공. 전방에 갔더니 마른 명태가 왔다고 할 정도로 밥도 적고 잠을 못 잔 생각만 남. 훈련병 때 일렬로 담요 하나에 자고 춥고 배고픈 생각만 남. 훈련소 있을 때 이준식 소장은 상의 군인으로 키가 작았음. 2년 후 제주도로 갔는데 훈련병은 밥, 국, 김치, 기간사병은 고기, 멸치조림, 깍두기 등을 제공했음, 정량은 똑같은데 영외거주자가 가져가 양이 적었음. 나무로 땔감 했음.			
퇴소 후 상황	제1훈련소 3사단 18연대에서 96일 동안 훈련을 받고 전방에서 근무했음. 1951년 작전 수행 중 부상으로 서울 육군 3병원(3개월)에서 입원하고 상처가 악화되어 대구 육군3병원으로 이송한 후 3개월 동안 입원했음. 대구보충대에서 2개월 근무한 후 특명으로 제주 육군 제1훈련소(6연대 108중대)로 발령(전입) 받은 후 1955년 10월 병참대에서 제대했음. 전방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음. 1개 중대 1개 소대에서 인원을 뽑아서 기습작전을 도모하는데 전날 밤 통조림 등 먹을 것을 잘 주었음. 물 있는 개천으로 내려가 돌격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산호를 주면 적진으로 침입했음. 적이 먼저 발견하면 수류탄 투척, 포사격 등을 해왔는데 명령안하면 후퇴하지 못했음. 중대장이 신호 내려서 철수했음.			
부대시설 인지	**연대** 모슬포에 9개 연대 4개 대대가 있었는데 1연대가 인성리 방향으로 4~5중대가 나란히(쭉) 있었음. 연대는 차례대로 제1~9연대가 있었음. 보통 천막은 2개 중대(250명씩 500명 수용)에 하나였음. 훈련은 연대별, 중대별, 소대별로 훈련했음. 제식훈련은 대정골에서 올라가서 실시. 신병들을 학과장으로 인솔하는 역할을 했음. 기간사병은 1개 중대에 7~8명으로 당시 병장은 1개 중대 책임자였음. 기간사병은 훈련(조교 담당)을 시키지 않고 중대에서 학과장, 사격장으로 인솔하는 책임을 담당하였음. 학과장에 가면 교관, 조교들이 있었음. **숙영지** 제2숙영지(강정 입구), 제5숙영지(범호촌) 등이 있었는데 주로 물도 좋고 장소가 넓은데 선정했음. 제2숙영지는 대왕수 중심으로 있었고, 제5숙영지는 규모가 컸으며 주로 천막을 치고 병기 등 사격 훈련을 했음. 5숙영지는 넓은 벌판으로 사람 수가 제일 많고 1,000명 이상으로 최고 1만명 정도 있었음. 제1숙영지는 마전리로 크고 제2, 3숙영지는 작았고 제5숙영지는 서상효에 있었음. **급양 생산대** 이곳에서 5개월 근무했음. 제5숙영지(서상효) 근처 급양생산대에서 소, 돼지, 무우, 배추 등을 병참대로 보내면 훈련소 연대가 보급했음. 1개 소대 30~40명이 근무했으며 처음에는 규모가 컸는데 나중에는 작아졌음. 끌(칡)오름 밑에 급양 생산대 비석이 있음. 1개 중대 4개 소대에서 120명 이 근무했음. 중대장은 육군 대위이고 서무계 등이 근무했음. 소 500마리 정도, 돼지, 닭을 키우고 무우 등을 경작해서 병참대로 수송했음.			

	사격장 그 당시 M1, 칼빈 기관총 등으로 사격 훈련을 했음. 금악리에서 취침하고 대정골 근처에서 기관총, 박격포 등 사격 훈련을 했음. 인성리 앞에 산방산 오름에 사격장이 있었음. 각 개전투장은 모름. **병참대** 병참대에서 1년 근무했음. 만기제대 4년 동안 근무했음. 연대에서 알뜨르 비행장 앞 바다 끝으로 포로수용소 철조망 안에 있었음. 기간사병들이 항만대 대기소에서 장병들(250명)을 인솔해서 수용연대로 이동했음. 96일 동안 훈련을 받았음. 1중대 먹을 것(식사), 2중대 피복, 3중대 침대, 침낭, 4중대 천막 지주, 도라무깡, 휘발류 등 보급품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총기류는 다른 곳에서 담당했음. 병참대 근무자가 500여명이 넘었음. 훈련소장 이준식 중장, 병참부장이 대령이고 1개 중대에 장교 한명씩 있었음. **하사관학교** 하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음. 훈련소 바로 앞에 하사관학교 있었음. **육군 제98병원** 강병대교회가 있었는데 규모가 컸음. **운전병학교** 제3연대 서쪽에 있었는데 크지는 않았지만 지원자만을 뽑아서 교육훈련을 시켰음. **통신대** 소본부 근처(옆) **공병대** 제5연대 동쪽, 제5~6연대는 차례대로 있었음. **헌병학교** 인성리 동쪽에 있었음
제주도 훈련소 상황	
기타	
일시 · 장소	2019년 10월 25일(금) 자택 인근 식당
조사자	황 석 규, 송 훈, 고 광 명

<table>
<tr><td rowspan="6">증언자
정보</td><td>이 름</td><td>김 수 현</td><td>연 령</td><td>80대</td></tr>
<tr><td>계 급</td><td></td><td>군 번</td><td></td></tr>
<tr><td>입대일</td><td></td><td>전역일</td><td></td></tr>
<tr><td>출신지</td><td>서귀포시</td><td>학 력</td><td></td></tr>
<tr><td>직 업</td><td>향토사학 전문가</td><td>결 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서귀포시</td></tr>
<tr><td>훈련소
입소 동기</td><td colspan="4"></td></tr>
<tr><td>훈련소
생활</td><td colspan="4">신병 숙영지는 생수 위치를 파악한 후 만들었음.
제1숙영지는 동광리 동광오름(원물오름) 생수(현 충혼묘지 둘레)
제2숙영지는 상효동 대왕수
제3숙영지는 법화사 생수
제5숙영지는 법어촌 돈내코
소대공방, 각개전투, 야간전투 등은 교도연대에서 훈련시켰음.
제3숙영지에서 제5숙영지까지 이동은 도보로 행군했음.
모슬포 우체국은 훈련소장 관사(함석집)가 있던 곳임.
부소장 이하 장교가 거주했던 민간 집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td></tr>
<tr><td>퇴소 후 상황</td><td colspan="4"></td></tr>
<tr><td>부대시설
인지</td><td colspan="4"></td></tr>
<tr><td>제주도
훈련소 상황</td><td colspan="4"></td></tr>
<tr><td>기타</td><td colspan="4"></td></tr>
<tr><td>일시 · 장소</td><td colspan="4">2019년 7월 3일(수) 서귀포 자택</td></tr>
<tr><td>조사자</td><td colspan="4">황 석 규, 고 광 명, 송 훈</td></tr>
</table>

<table>
<tr><td rowspan="4">증언자
정보</td><td>이 름</td><td>김 ○ 철</td><td>생년월일</td><td>70대</td></tr>
<tr><td>출신지</td><td>대정읍</td><td>학 력</td><td>대졸</td></tr>
<tr><td>직 업</td><td>(사)대정현역사문예포럼
이사장</td><td>결 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대정읍 하모리 상가로 11–1</td></tr>
<tr><td>훈련소
생활</td><td colspan="4"></td></tr>
<tr><td>퇴소 후 상황</td><td colspan="4"></td></tr>
<tr><td>부대시설
인지</td><td colspan="4">숙영지
숙영지는 4곳에 존재했음. 지역에서 노인들을 면담했는데 숙영지에서 농경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함.
육군 제98병원(대정읍 하모리 1361–1, 화장터)
육군 제98병원(대정여고)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2019년 5월 14일 국군간호사관학교 학생들(30여명)이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음.
육군 제98병원에서 부상자 치료(미군 의료단)를 했음. 육군 제98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 종달리, 세화리에서 환자들이 왔음. 다친 부상자를 위로하기 위해 여학생들이 감자, 메밀 범벅, 자리구이, 옥돔, 빙떡 등을 가져 왔음.
포로수용소
6.25 종반에 중공군 반공 포로는 250만 명이 있었음. 친공 포로수용소는 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존재했음. 5,000여 명을 분산 수용할 예정이었는데 반공 포로라도 보내 달라고 했음. 수용소 내에서 수류탄이 터져서 100여 명 사망한 적이 있음. 친공 포로들은 아침이 되면 분열, 열병하고 나서 철 조각을 갖고 트럼펫 작업을 했음. 잔반 받아가는 사진, 도망가는 사진 등이 있음. 포로수용소 내에 야채류 작업장이 존재했다고 함. 포로 이동 과정(수송 장면)에서 포로 수용자 중 베이징계는 판문점을 통해 건너갈 때 중공군들은 신발, 옷가지 등을 미군 것이라면서 던져서 갔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음. 포로가 생활했던 벽채나 멀케라는 육군 제1훈련소 포로수용소 흔적이 존재함.
군악대
집에 군악대장이 놀러 온 적이 있음. 악보를 연도별로 작성했고 전선야곡 등 진중가요 등이 다 여기에서 나 왔음.
기타 문화생활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전도를 돌아다니고 순회강연을 하였는데 이때부터 영화가 시작된 것임.
부대시설 위치 경로
연병장 서쪽에 가시오름 농원 생산듸(벌판 농지 생산), 범호촌 숙영지 경계에서 포술 훈련, 정지논 왼쪽 오른쪽 제2연대 29사단, 향토사단, 육군 제98병원 근무자 가족들, 백인협은 교육을 위해 세화고 분교 창설, 이응준 장군은 국기게양대 마무리 작업, 백선엽 장군을 최종적으로 훈련소 낙점, 이응준 장군은 병사가 무슨 영화를 보냐고 한 적이 있음.
PX는 부두 다음에 있었는데 조만식, 조선부 여사가 운영을 했으며 커피, 양주, 빵, 햄버거 등을 팔았는데 잘 운영되었음. 선우식당 옆 PX는 장교 식당이나 숙소로도 활용했음. 귀환 부상자를 위로하여 주기 위해 술을 제조해서 마셨음.
부대시설 위치 경로 탐방
신영물(만남의 장소)➡대승사(왼쪽), 무연고 보존 장소(6.25 때 이영준 장군이 단골로 찾은 곳)➡무수연대(왼쪽) 조선수군연대➡멜케 해수욕장(모슬포)➡농장대(분소공장)➡포로수용소(벽 존재)➡경작지가 있는 곳에 중공군 포로들이 있었던 담채(멜케분소)➡사격장</td></tr>
</table>

	(최근 해병대 사격장) 송악산 활주로 해군 항공대➡섯알오름 밑에 염소굴 분소(백조일손 있는 곳이 탄약고)➡산이수동 하얀 건물 서쪽부터 만다리 구석(포로수용소 본소)➡비슷하게 가면 포로수용소(수용대 자리)➡하순항에서 질질 끌면서 출정(제일 불쌍한 사람들)➡전용주차장 오른쪽 좌회전하면 이일대가 훈련소 부지로 사격훈련이나 행군했음➡이 곳이 면회 온 사람 숙박소 시설➡놀래왓에 제29사단 창설 기념비(상모리 청년들이 세운 것으로 2개 연대(84~85연대)를 주축으로 건립했으며 이 길이 군용도로로 이 안에 훈련소가 있었음)➡걸레물(지대가 낮음 곳) 강병대 교회(오전 개신교, 오후 천주교)➡교회 옆이 6.25 때 피난촌(막사리 2평으로 길바닥까지 나와서 잠을 잤음)으로 17만 군도(軍都)였음➡빨래터(신영물은 처음이고 혼물은 2차 빨래터)➡육군 제98병원에서 거즈, 붕대 등이 나옴(장관목)➡훈련소에 납품용으로 부식공장이 존재했음(콩마물, 두부, 도살공장, 탈미공장 등)➡할망당 자리(동일리 혼물)에 제2검문소 2개 존재(강병대 정문, 위병소 검문소)➡홍물동네(이 안에 빨래터)➡육군 제98병원 화장터(미군 부대 앞)➡비석거리 집 근처(돌무지)에 육군 제98병원 허물어진 돌➡연병장(김가네 동산)
제주도 훈련소 상황	
기타	《제주신문》 기사 보도 내용에 따르면 피난민과 본토 지역민들 간에 싸움이 있었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상 갈등이 있어서 조심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로 인해 포로와 피난민들이 대정지역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음. 중화요리집이 대정읍 읍내에서 처음으로 생김. 50년대 중반 피난민들이 남겨놓은 것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 피난민들은 보말, 고구마, 해초류 식사로 연명했으며, 고아들은 곳자왈 열매를 따서 먹었음. 어릴 적에 칼라 영화를 본 적이 있음. 사계리에는 영외 거주자가 많이 살았음. 문화 예술적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군 변천사, 사회생활 모습, 역사, 문화, 관습 등 생활상, 의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함. 빨리 해산시키기 위해 벨트로 애기가 죽었던 이야기, 애를 업고 사격장에서 탄피를 주우다가 불발탄이 터져서 애가 죽은 경우도 있었음.
일시 · 장소	2019년 8월 2일(금) 대정현역사자료전시관 사무실 및 현장답사
조사자	황 석 규, 고 광 명

<table>
<tr><td rowspan="4">증언자
정보</td><td>이 름</td><td>이 ○ 수</td><td>생년월일</td><td>80대</td></tr>
<tr><td>출신지</td><td>서귀포시</td><td>학 력</td><td>대학 졸</td></tr>
<tr><td>직 업</td><td>향토사학 전문가</td><td>결 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서귀포시 천지동</td></tr>
<tr><td>훈련소
입소 동기</td><td colspan="4"></td></tr>
<tr><td>훈련소
생활</td><td colspan="4">밥을 먹는데 바람이 불어 모레가 날려도 배가 고파서 입 안에서 자글자글 씹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물을 먹기 위해 달려가서 먹었다고 함. 일요일에 동네 큰 연못에서 빨래를 해서 비누 냄새가 났는데도 그 물을 먹었다고 함.</td></tr>
<tr><td>퇴소 후 상황</td><td colspan="4"></td></tr>
<tr><td>부대시설
인지</td><td colspan="4">공병대
육군 제1훈련소를 설치하기 위해 우선 공병대가 신설되었음. 첫 공병대 위치는 보성초등학교(제1연대에서 제8연대까지)에서 일렬로 배치되지 않았음.
수용대
과거 일주도로에 군 막사를 건립하고 제1, 2 3연대를 설치하여 훈련을 시작했음. 제5연대와 제6연대는 바뀌어서 배치했음. 원래 대정에서 보성 및 인성으로 지나가는 길을 큰 길로 교체하여 육군 제1훈련소의 통로를 만들었고, 이 도로가 현재 도로의 근간이 되었음. 일반인과 학생들의 통로는 단산 쪽으로 새로 길을 만들어서 이용하게 했음.
연병장
훈련소 연병장은 운암연병장으로 지칭되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음. 현'평화의 터'부지는 당시 운암연병장이 위치했던 곳임.
워커운동장
워커운동장은 산 앞에 워커 운동장(현 대정고등학교 앞)이 건립되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전도체전이 열리기도 하였음.
사격장
모슬봉 북쪽에는 각개전투장, 화생방장, 사격 연습장(PRI) 등이 단계별로 위치해 있었음. 모슬봉 북쪽 밑에 있는 사격장(PLI)에서 사격 연습(1.2.3 단계)을 했음. 무반동총 사격장은 산방산 아래쪽에 있었는데 직사포 훈련은 단산에서 산방산 방향으로 무반동총(직사포) 사격 연습을 했음. 지금도 산방산 쪽에 사격으로 부서진 자갈(돌)들이 있음. 가시오름을 모슬포 레이더 기지로 만들기 위해 위쪽에서 볼 때 가시봉(오름)을 불도저로 산을 깍아서 평탄화 작업을 했음. 높이는 115m에서 106.5m로 9.5m 낮아지고, 모슬포 높이는 186m에서 180.5m로 5.5m 낮아졌음.
기타
정문은 1952년 설치했는데 그 당시 도로 폭이 적었음. 현재 정문은 1953년 도로 폭을 넓히면서 나중에 설치했음. 1953년 훈련소 끝날 무렵 정문에 '반공 방첩'을 설치했기에 모슬포 사람들에게는 '반공탑'으로 명명되었음. 훈련소 마크는 반공방첩하기 위해 써서 붙였다고 함. 운암연병장은 처음 훈련소 옆에 건립되어서 오무라(大村)수용소가 아님. 육군 제98병원의 설립 날짜를 확인해 주었음.
백인협 장군은 영관급 등 장교들에게는 독했음. 싸이렌 달고 다니다가 운전기사가 울리면 피 했다는 이야기가 있음. 훈련병들에게는 배가 고프지 않으나 등 잘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훈련소 영외 자택에서 거주했음.</td></tr>
<tr><td>제주도
훈련소 상황</td><td colspan="4"></td></tr>
<tr><td>기타</td><td colspan="4"></td></tr>
<tr><td>일시 · 장소</td><td colspan="4">2019년 7월 3일(수) 서귀포 자택</td></tr>
<tr><td>조사자</td><td colspan="4">황 석 규, 고 광 명</td></tr>
</table>

연구진

연구책임	황 석 규	(사)제주다문화교육 · 복지연구원
공동연구	고 광 명	(사)제주다문화교육 · 복지연구원
	송 훈	(사)제주다문화교육 · 복지연구원

제주학연구 64

제주 육군 제1훈련소 구술조사
– 부대시설 위치를 중심으로 –

발행인 ‖ 김 동 전
발행일 ‖ 2019년 11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 www.jst.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8-89-6010-722-9 9309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